

정답과 해설

통합편

고등

공통국어2



I 운문 문학

+ 개념 확인하기

008~013쪽

- 1 ○ 2 ○ 3 × 4 시적 상황 5 태도 6 어조
7 ○ 8 ○ 9 후각적 10 시각화 11 운율 12 반복
13 × 14 × 15 ○ 16 영탄법 17 점층법 18 대조법
19 변화 20 감정 이입 21 × 22 × 23 ○
24 반어법 25 설의법 26 × 27 ○ 28 ○
29 수미상관 30 기승전결 31 선경후정 32 ×
33 ○ 34 ○ 35 사설시조 36 3음절 37 가사

DAY 01

1 제망매가 **나신** 올리기

014~015쪽

- 01 ⑤ 02 ⑤ 03 아아 04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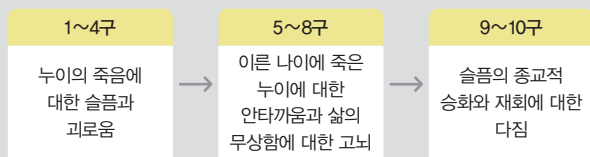
제망매가_월명사

해제 이 시가는 신라 경덕왕 때 승려 월명사가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며 부른 10구체 향가이다. 누이에 대한 애상적 정서와 함께 삶과 죽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화자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요절한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나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삶의 무상함을 느끼고 고뇌하지만, '미타찰'에서 누이와 재회할 것을 믿음으로써 누이의 죽음에 따른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해 내고 있다.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의 슬픔과 종교적 승화

특징 • 불교의 윤회 사상 및 불교적 세계관이 드러남.
•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로 화자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표현함.

한눈에 보기



01 '한 가지에 나고'는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났다는 의미이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나 죽고 나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데에서 화자는 삶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다.

02 9구에 제시된 '미타찰'은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 시가의 화자가 누이와 현실에서의 재회를 기약했다고 보기 어렵다.

모답 풀이

- ① '나는 간다는 말도 /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에서 화자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③ '한 가지에 나고 / 가는 곳 모르온저.'에는 혈육이라도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무상함을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④ 9~10구에서 화자는 도를 닦아 '미타찰'에서 누이와 만나기를 기다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며 누이와의 재회를 기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3 10구체 향가의 형식적 특징이며, 내용을 전환하고 시상을 고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낙구의 첫머리에 위치하는 감탄사이다. 이 시가에서는 '아아'가 <보기>의 설명에 해당한다.

04 <보기>는 고려 왕조의 도읍지를 둘러보며 인생의 무상함과 자연의 불변성을 대조적으로 인식한 화자가 망국의 한을 노래한 시조이다. 이 시가에서 ㉠ '예'는 화자가 죽은 누이와 사별하고 슬픔을 느끼는 이승이고, ㉡에서 '미타찰'은 불교의 극락 중 하나로 죽은 누이와 재회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기>의 ㉢ '도읍지'는 멸망한 고려의 옛 도읍지를 뜻하므로 화자가 상념에 잠겨 회고하는 공간이고, ㉣의 '태평연월'은 태평하고 안락한 세월을 뜻하는 말로 고려가 융성했던 과거를 의미한다.

모답 풀이

- ① 이 시가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에서 비롯된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고려 왕조의 도읍지를 둘러보며 고려 왕조가 몰락한 데에서 오는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② 이 시가는 3단 구성을 취하며, 낙구 첫머리에는 감탄사가 들어간다. 이는 '초장 - 중장 - 종장'의 3장으로 이루어지고, 종장의 첫 음보에 감탄사가 들어간 <보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는 '오백 년(五百年) V 도읍지(都邑地)를 V 필마(匹馬)로 V 도라드니.'와 같이 4음보의 율격이 나타나고 있다.
④ 이 시가의 ㉡은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화자의 다짐을 드러내고 있고, <보기>의 ㉤은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며 허망함을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DAY 02

2 가시리 **나신** 올리기

016~017쪽

- 01 ① 02 ⑤ 03 설온 님 04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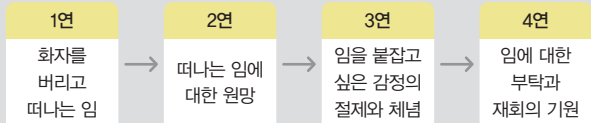
가시리_작자 미상

해제 이 시가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화자는 떠나는 임을 붙잡지 못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곧 다시 돌아오라는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임에 대한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

- 특징**
- 총 4연의 분연체로 구성됨.
 - 여음과 후렴구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함.
 - 간결하고 솔직한 어조로 임을 보내는 애절한 마음을 드러냄.

한눈에 보기



01 이 시가는 임이 떠나는 상황을 맞이한 화자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고려 가요이다. 각 연에서 임과 이별하는 화자의 애절한 마음과 임에 대한 감정이 드러나고 있으나 이를 시간의 특정 한 흐름에 따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2 이 시가에서는 3음보, 3·3·2조의 운율, aaba 구조, 시구의 반복, 여음 및 후렴구 등을 활용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처음과 끝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시구를 배치하는 수미상관 구조 또한 운율을 형성하고 형태적, 구조적 안정감을 주지만 이 시가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모답 풀이

- ① 이 시가는 '가시리(3)가시리(3)있고(2)'와 같이 3·3·2조의 음수율과 한 행을 3번에 끊어 읽는 3음보의 율격이 나타나고 있다.
- ② 이 시가는 '가시리(a)가시리있고(a) (나노) / 버리고(b)가시리있고(a)'와 같이 '반복 - 반복 - 변화 - 반복(aaba)'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 ③, ④ '나노', '위 증주가 대평성대(太平盛代)'와 같이 여음과 후렴구가 반복되어 음악적 효과와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03 이 시가의 4연에 제시된 '설은 남'은 '설은'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 '화자를 서럽게 하는 임'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로 해석할 경우 시적 상황은 임도 화자와 마찬가지로 이별을 슬퍼하나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맞이한 상황이 되며, 후자로 해석할 경우 시적 상황은 임이 화자를 떠나 버린 상황이 된다.

04 이 시가의 화자는 3연에서 떠나는 임을 붙잡아 두고 싶다는 진심을 드러내면서도 그렇게 하면 임이 돌아오지 않을까 봐 걱정하며 임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화자는 임을 붙잡겠다거나 따라가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이별에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은 임에게 자신을 떠나가려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으로, 반복을 통해 화자는 임에게 정말 떠나는 것인지 물으며 이별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② ㉡에서 화자는 임이 없이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상황을 탄탄하며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과 ㉣은 '생각 같아서 임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 혹시나 임께서 서운하면 다시는 오지 않을까 봐 두렵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떠나는 임을 붙잡고 싶은 화자의 진심과 함께 임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나 있다.

- ⑤ ㉤은 '떠나더라도 바로 돌아오시라.'는 간절한 염원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임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저 임이 돌아오기만을 소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청산별곡

내신 올리기

018~019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⑤

청산별곡_작자 미상

해제 이 시가는 삶의 비애와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이 상황을 추구하지만 현실에 부딪쳐 체념할 수밖에 없는 당시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다룬 고려 가요이다. 청산과 바다를 동경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며 청산을 중심으로 하는 1~4연과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5~8연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 시가는 구전되어 오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문자로 기록되어 전해졌다. 고도의 상징성을 지녀 화자를 누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주제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 삶의 고통과 비애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 특징**
- 후렴구를 반복하고 율림소리인 'ㄹ', 'ㅇ'을 활용해 운율감을 조성함.
 - 3·3·2조와 3음보의 율격, 분연체 구성을 지님.

한눈에 보기

1~4연 청산의 노래		5~8연 바다의 노래		
1연	청산에 대한 동경	대칭	5연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체념
2연	삶의 비애와 고독		6연	바다에 대한 동경
3연	현실 세계에 대한 미련		7연	삶에 대한 절박한 심정
4연	절망적인 고독과 비탄		8연	술을 통한 고뇌의 해소

01 이 시가의 5연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에 어쩔 수 없이 온다는 내용, 6연은 바다에서 살고 싶다는 내용이다. 5연과 6연의 순서를 바꾸면, 1~4연은 청산을 중심으로 하는 노래이고, 5~8연은 바다를 중심으로 한 노래로 대칭적 구조를 이루며 시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02 이 시가에서 '청산'과 '바다'는 각각 1연과 6연에 제시되어 있는데, 두 시어 모두 화자가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 도피처로 선택한 자연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03 이 시가의 7연에 제시된 ㉠ '사슴'에는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 해금을 켜는 것과 같이 기적을 바라는 절박함 또는 유희에 탐닉하려는 화자의 심정이 반영되어 있다.

모답 풀이

- ① '우려라 우려라 새여 자고 니려 우려라 새여.'에서 화자는 시름 많은 자신이 자고 일어나 우는 것처럼 '새'도 울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화자가 '새'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것이다.
- ②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에서 '물 아래'는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화자가 바라보는 속세를 의미하며, 화자가 살고자 하는 '청산'이나 '바다'와 대비되는 공간이다.
- ③ '오리도 가리도 업스 바므란 쏘 었디 호리라.'에서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다고 하였으므로 '밤'은 고독한 시간을 의미한다.
- ④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와 뒤 구인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를 바탕으로 하면 '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의미하며 화자는 고통스러운 자신의 운명에 체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이 시가는 화자를 어떤 사람으로 두냐에 따라 시의 내용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화자를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속세를 떠난 지식인으로 이해한다면, '잉 무든 장글란'은 고려 시대의 혼란스러운 정세를 고려하여 '날이 무딘 병기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화자를 사랑을 잃은 여인으로 보면 '잉 무든 장글란'은 '이기 문은 은장도'로 해석할 수 있고, 유랑민을 화자로 보면 '이 끼 문은 쟁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실연한 사람으로 화자를 설정하면, 실연한 슬픔 때문에 화자가 세상을 떠나 '청산', '바다'로 가고자 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 ② 5연의 '미리도 괴리도 업시'는 실연한 사람의 상황을 드러내며 화자의 고독함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 ③ 유랑민으로 화자를 설정하면, 화자는 혼란한 시대 상황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3연의 '가던 새 가던 새 본다'에서 '가던 새'는 유랑민을 화자로 설정하면 '갈던 발이랑'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유랑민이 농사지으며 살던 옛 삶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AY 02

2 서경별곡 **나신 물리기**

020~021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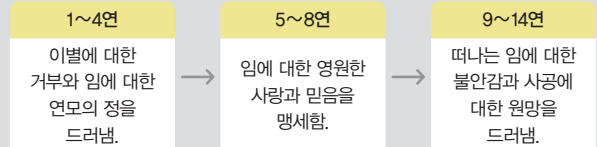
서경별곡_작자 미상

해제 이 시가는 애절한 사랑과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면서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과 질투의 감정을 직설적인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이 시가는 전체가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3음보의 율격이 나타나며 여음구와 후렴구가 드러난다.

주제 이별의 정한(淸恨)

- 특징**
- 상징적 시어를 통해 화자가 처한 이별 상황을 드러냄.
 - 설의법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을 맹세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 시상 전개에 따라 슬픔, 사랑, 원망 등 화자의 정서 변화가 드러남.

한눈에 보기



01 이 시가는 고려 가요로, 고려 시대에 주로 일반 백성들이 창작하여 부르던 노래이다. 평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진솔한 표현으로 노래한 시가로, 구전되다가 조선 시대에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문자로 기록되었다.

02 5연의 '바회예', 9연의 '대동강', 13연의 '고즐여'에서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5연의 '바회예'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끈이 끊어지겠다'라는 의미의 시구에서 화자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9연의 '대동강'은 화자가 임과 이별하는 이별의 공간이다. 13연의 '꽃'은 임이 만날 다른 여인을 비유한 표현이다.

모답 풀이

- ①, ④ 5~6연에서 화자는 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구슬'과 '끈'을 대비하여 표현하였다. '구슬'은 잘 깨어지는 성질의 대상이고, '끈'은 끊어지지 않는 성질의 대상이다. 화자는 두 대상을 통해 '끈'처럼 불변하고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9연에서 '대동강'이라는 구체적 지명을 제시하여 이별하는 공간을 제시하고, 10연에서 임을 대동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어 이별 상황을 만드는 '사공'에게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6연에서 화자는 설의적 표현인 '그초리잇가'를 통해 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였다.

03 이 시가의 10연에 제시된 ㉠ '사공'은 임이 대동강 건너편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물로, 화자가 임에게 느끼는 원망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대상이다.

04 이 시가에서는 이별을 맞이한 화자의 심정을 알 수 있을 뿐, 임이 화자와의 이별을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모답 풀이

- ① 이 시가는 고려 시대의 평민들이 주로 부른 고려 가요이다. 그러므로 영화 속 등장인물의 옷은 고려 시대 백성의 복장이어야 한다.
- ② 이 시가의 화자는 9연에서 대동강 가에서 임과 이별하고 있으며, 임은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 화자를 떠나고 있다. 따라서 영화 촬영 장소는 배가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큰 강가여야 한다.
- ③ 화자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애달픈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의 심정을 부각할 수 있는 슬픈 음악을 배경 음악으로 선정해야 한다.
- ④ 화자는 3연에서 '질삼보 버리시고'라고 하였다. '질삼보'는 길쌈하던 배라는 뜻으로 이 시가의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다.

DAY 03 1 강호사시가 내신 물리기 022~023쪽

01 ① 02 ⑤ 03 ⑤ 04 ③

강호사시가 -행사성

해제 이 시가는 강호에 묻혀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은 연시조이다. 화자는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면서 이러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모두 임금의 은혜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가는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은사의 삶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각 연의 마지막 구절에서 유교적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특징 •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의 흐름에 따라 계절별로 한 수씩을 노래함.
• 각 수가 동일한 구조로 반복되어 형태적 안정감을 줌.
• 대유법, 대구법, 의인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함.

한눈에 보기

제1수 춘사		제2수 하사		제3수 추사		제4수 동사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안주 삼아 탁주를 마시는 봄의 흥취	→	한가로이 강바람을 즐기는 여름의 초당 생활	→	강에서 고기를 잡으며 즐기는 가을의 정취	→	삿갓과 도롱이로 만족하는 겨울의 강호 생활

01 음성 상징이란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인 의성어, 모양이나 움직임 흉내 내는 말인 의태어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이 시가에서는 각 수의 중장이 반복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을 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한 부분은 없다.

모답 풀이

- ② 제2수의 ‘유신한 강파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에서 강 물결을 의인화하여 강 물결이 바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③, ⑤ 각 수마다 초장에 ‘강호에 ~이 드니’, 중장에 ‘이 물이 ~도 역군은 이삿다.’라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④ 이 연시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는 화자의 삶이 드러나 있다. 각 연의 중장에 화자의 계절별 생활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02 이 시가는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계절별로 한 수씩 노래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제3수에서 화자는 ‘가을’에 물고기를 잡으며 자연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3수 중장에 제시된 것처럼 ‘소일’일 뿐 노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화자는 제4수에서 ‘겨울’에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소박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의 삶이 노동을 통해 점점 풍요로워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① ‘강호’는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자연을 의미하는 동시에 임금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화자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자연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04 이 시가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흥을 노래하면서도 그러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 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제3수의 ‘소일’은 ‘어떤 일에 재미를 붙여 심심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관직에 나가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고기를 잡는 소일을 하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겠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제1수에서 자연을 즐기는 흥취를 ‘미친 흥’으로 표현하였다.
②, ⑤ 각 수의 중장에서 ‘역군은이삿다’로 마무리하여 연군지정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제4수에서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라는 대목으로 겨울에 도롱이를 입어도 춥지 않으며 임금에 대한 충정을 표현하였다.

DAY 03 2 만흥 내신 물리기 024~025쪽

01 ② 02 ③ 03 ① 04 ①

만흥 -윤선도

해제 ‘만(漫)’은 가득 차서 넘쳐흐른다는 뜻이고, ‘흥(興)’은 흥거움을 뜻한다. 즉, ‘만흥’은 속세를 벗어난 자연 속에서의 흥취가 화자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가에는 자연 속에서의 즐거운 삶에 만족하고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강호한정가이자 강호가도의 특징이 드러나 있다.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자연 친화적인 화자의 모습이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린 표현을 통해 나타나 있다.

주제 속세를 떠나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특징 •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남.
• 속세와 자연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안분지족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냄.

한눈에 보기

제1수~제5수	제6수
자연 속에서 분수에 맞는 삶에 만족함. ↳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의 즐거움	자연 속에서의 삶은 임금의 덕분임. ↳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01 이 시가는 총 6수의 평시조가 묶여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②는 사설시조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 사설시조는 평시조에 비해 초장과 중장이 제한 없이 길며 종장도 길어진 형태를 보이는 시조 형태이다.

02 이 시가의 화자는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살며, 현재의 삶이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속세의 삶보다 낫다는 인식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킨다는 '안빈낙도'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하는 일 없이 놀고 먹음.
- ②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전국책』의 「초책(楚策)」에 나오는 말로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 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 ⑤ 사람의 몸에 날개가 돌아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됨.

03 제1수에 나오는 '뒤풀'은 '산수간 바회 아래'라는 자연 즉, 속세를 초탈한 곳에 지으려는 집이므로 [B] 자연에서의 삶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04 <보기>는 조선 초기에 정극인이 지은 시가인 「상춘곡」이다. 제시된 부분은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귀도 나를 꺼리니, / 아름다운 자연 외에 어떤 벗이 있을까. / 가난한 처지에 헛된 생각 아니하니, / 아무튼 한평생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이만하면 족하지 않은가.'라는 의미이다. 이 작품은 조선 시대 사대부 가사의 효시로 여겨지는 작품인데, 이후 송순의 「면앙정가」, 정철의 「성산별곡」으로 이어지며 강호가도의 시풍을 형성한다. 이 시가와 <보기>는 자연을 탈속적인 공간으로 바라보며 화자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모답 풀이

- ② 이 시가와 <보기> 모두 양반 계층이 지은 작품이다.
- ③ 이 시가와 <보기> 모두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설의법을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이 시가에서는 제6수의 '남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에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보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⑤ 이 시가와 <보기>에는 사회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으며 속세(사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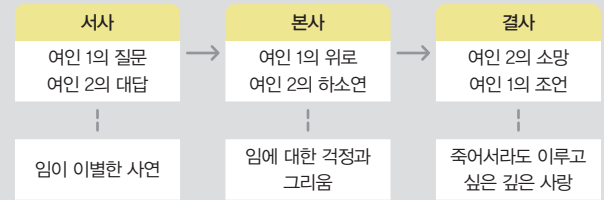
속미인곡 - 정철

해제 이 시가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임과 이별한 여인의 애달픈 심정으로 대입하여 표현한 가사이다. 「사미인곡」 이후에 지어진 노래여서 「속미인곡」이라는 제목을 지니고 있다. '충신연주지사'라고도 한다. 중심 화자와 보조적 화자를 설정하여 대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여 임(임금)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을 간곡하게 노래하고 있다.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 특징**
-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 우리말 표현의 아름다움을 잘 살림.
 - 화자의 심정과 화자가 처한 상황을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드러냄.

한눈에 보기



01 이 시가의 제목에서 '미인(美人)'은 화자가 사랑하는 임이자 작자가 그리워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모답 풀이

- ① 이 시가는 '데 가는 V 더 각시 V 본 듯도 V 훈데이고'와 같이 한 행을 네 번 끊어 읽는 4음보의 율격을 보이고 있다.
- ②, ③ 이 시가는 조선 시대에 지어진 가사로, 가사는 '서사 - 본사 - 결사'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④ 이 시가는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속(續)'은 '잇다'라는 뜻이다.

02 이 시가는 중심 화자인 여인 2와 보조적 화자인 여인 1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인 1이 이별한 이유를 묻자 여인 2는 '내 몸의 지은 죄 뉘가 뉘 빠혀시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드'라고 말하며 임과의 이별 이유가 자신과 조물주에게 있다고 말한다. 이에 여인 1은 '글란 생각 마오'라고 말하며 여인 2를 위로하고 있다.

03 ㉠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롬이라 허물하랴'에는 중심 화자인 여인 2가 임과 헤어진 것이 하늘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의 앞에서 화자는 자신이 지은 죄가 산 같이 쌓여서 임과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4 <보기>에서 이 시가의 작자 정철이 동인의 탄핵으로 임금의 곁에서 벗어나 낙향했다고 하였으나, 여인 2는 임과 이별한 원인을 하늘이나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을 자책하며 '조물(조물주)'을 탓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작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DAY 04

1 속미인곡

나신 물리기

026~029쪽

01 ⑤

02 ⑤

03 ②

04 ⑤

05 ④

06 ⑤

07 ⑤

08 ③

모답 풀이

- ① <보기>에서 정철이 활동하던 시기의 임금에 '선조'이므로 이 시기에 드러난 임은 '선조'임을 알 수 있다.
- ② 임과 이별하여 임의 곁으로 가지 못하는 각시(여인 2)는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하여 지내던 작자 자신을 의미한다.
- ③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허 업서'에 '군똥'은 다른 뜻이라는 의미이다. <보기>에서 작자 정철은 탄핵을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군똥'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 ④ '백옥경(白玉京)'은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므로 작자의 입장에서 임금이 있는 한양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양에서 떠나왔다는 것에서 벼슬에서 물러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 05 이 시가의 화자는 '[C] 초가집 찬 자리'로 이동한 후에도 임을 그리워하며, 결사에서는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C]로 이동한 후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 ① 화자는 높은 산에는 '구름'과 '안개'라는 장애물이 존재하여 임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여 물가로 이동한다.
- ② 화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 임에 대한 소식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고, 물가에라도 가서 소식을 듣고자 이동을 하고 있다.
- ③ 물가에 '빈 배'가 걸려 있지만 사공이 없으므로 임과 재회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화자의 외로움이 심화된다.
- ⑤ 화자는 높은 산에서는 '구름'과 '안개' 때문에, 물가에서는 '바람'과 '물결' 때문에 임의 소식을 듣지 못한다. '모참(茅簷) 촌 자리'에 와서 꿈에서나마 임을 보고자 하나 '계성' 때문에 잠을 깨고 만다.

- 06 ㉠~㉢은 모두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의미하지만, 꿈속에서나마 화자가 임을 볼 수 있었으므로 ㉢은 화자가 임을 보게 하는 매개체이다.

- 07 '낙월'과 '구준비'는 모두 죽어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보여 주는 화자의 분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낙월'은 멀리서 잠깐만 임을 비춘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반면에 '구준비'는 임의 옷을 적시며 임의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이 시가에는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낙월'과 '구준비'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8 <보기>는 이 시가에 드러난 '충신연주지사'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시가는 여성 화자를 내세움으로써 이별의 안타까움을 섬세하고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고, 시가의 내용에서 군신 관계를 임과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관계로 치환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모답 풀이

- ① 임금과 멀어져서 낙향한 작자의 상황, 임과 이별하여 임을 보지 못하는 여인 2의 상황 모두 임과 이별하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이 시가에는 임과 헤어진 이유를 조물주의 탓이라고 하여 임금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 ④ 임과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관계에 빗대어 임금에 대한 작자의 충정을 돌려서 표현하고 있다.
- ⑤ 임과 이별한 여인의 상황에 작자의 상황을 대입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작자가 처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04

2 나룻배와 행인 나신 물리기

030~031쪽

01 ⑤

02 ③

03 ④

나룻배와 행인_한용운

해제 이 시는 '나룻배'와 '행인'에 '나'와 '당신'의 관계를 비유하여, 인내와 헌신으로 실천하는 참된 사랑을 효과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참고 견디며, 임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참된 사랑이란 무엇인지 엿볼 수 있다.

주제 인내와 희생을 통한 참된 사랑의 실천

특징

- 은유와 상징을 사용하여 '나'와 '당신'의 관계를 대조적으로 설정하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수미상관의 구조로 형태적 안정감과 운율감을 줌.

한눈에 보기

'나'	'당신'
•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감. • '당신'이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림.	• '나'를 훔쳐보지 않음. •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떠남.
↓	↓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태도	무관심하고 무정한 태도

- 01 이 시의 화자는 '당신'이 무정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변함없이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당신'을 기다릴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시행의 길이 변화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이 시에 드러나지 않는다.

모답 풀이

- ① 1연과 4연에서 수미상관의 구조를 보이며 형태적 안정감과 운율감을 주고 있다.
- ②, ③ '-바니다'의 경어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각운을 형성하고, 경건한 시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④ '나'에게 무심하고 무정한 '당신'의 태도와, '당신'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나'의 태도를 대비하여 '나'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 02 이 시의 3연에 제시된 ㉢은 '당신'에 대한 '나'의 태도가 아니라, '나'에 대한 '당신'의 무심한 태도가 드러나는 구절이다.

모답 풀이

- ①, ② ㉠과 ㉡에는 '당신'을 위해 헌신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당신'에 대한 '나'의 믿음이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당신'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03 이 시에서 '나'는 '당신'을 위해 인내하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시를 독립운동과 관련짓는다면 '나'는 조국의 독립을 바라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고, '당신'은 조국, 조국의 광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침략자로 '당신'을 바라보는 것은 이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 ① '나'를 창작의 고통을 겪는 시인으로 이해할 때, '당신'은 '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③ 시인이 승려였던 점을 고려하여 불교와 관련지어 이 시를 이해한다면, '나'를 진리를 찾는 종교의 구도자로 해석할 때, '당신'은 종교적 구원이 필요한 중생, 도달하기 힘든 불교적 진리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시인이 독립운동가였음을 고려하면 '당신'은 조국, 조국의 광복으로 해석되므로, '나'는 조국의 광복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DAY 05 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내신 올리기** 032~033쪽

01 ② 02 ⑤ 03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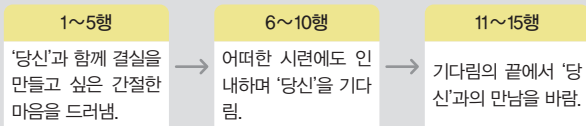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_정희성

해제 이 시는 '날실'과 '씨실'이 한 폭의 비단을 이루는 것처럼 '당신'과 '나'의 사랑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표현한 작품이다. 사랑이라는 추상적 감정을 비단이라는 사물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그려 내며,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뒤 '당신'과의 재회를 바라는 화자의 의지를 서정적 필치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에서 '나'와 '당신'의 관계는 사랑의 의미를 뛰어넘어 암울한 현실에서 서로에게 위로와 위안을 전하는 공동체적 연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주제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바람과 기다림

- 특징**
- 가정법을 사용하여 '당신'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강조함.
 - 수미상관 구조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 비단이라는 사물을 활용해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함.

한눈에 보기



- 01** 이 시는 화자와 '당신'의 사랑을 '하나의 꿈', '한 폭의 비단' 등 아름다운 시어에 비유하며 서정적인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정적 표현과 수미상관 구조 등을 활용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모답 풀이

- ①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와 같이 도치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이 시는 '~있다면', '~된다면'과 같이 미래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추운 길목', '오랜 침묵과 외로움', '겨울'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암담하고 괴로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이 시는 첫 부분과 끝 부분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며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시적 여운을 느끼게 한다.

- 02** 화자는 '하나의 꿈', '한 폭의 비단'과 같은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 '추운 길목', '겨울', '외롭고 긴 기다림'이라는 현실의 시련을 이겨 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화자는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 내고 '당신'과 재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② 화자와 '당신'이 현재 헤어져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나, 시에서 '나'가 '당신'을 떠나보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화자가 옛사랑의 추억을 회상하는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화자는 '당신'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으나,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불안함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03** ㉠은 어떤 고난과 시련도 '나'와 '당신'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는 화자의 굳은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모답 풀이

- ① ㉠은 화자와 '당신'이 만나는 미래의 시간을 가리킨다.
- ② ㉡은 '한 폭의 비단'과 같이 화자와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 맺는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 ③ ㉢은 '당신'과 화자가 서로에게 건네는 위로와 위안을 의미한다.
- ⑤ ㉤은 화자가 처해 있는 시련과 고난의 현실을 의미한다.

DAY 05 ② 진달래꽃 **내신 올리기** 034~0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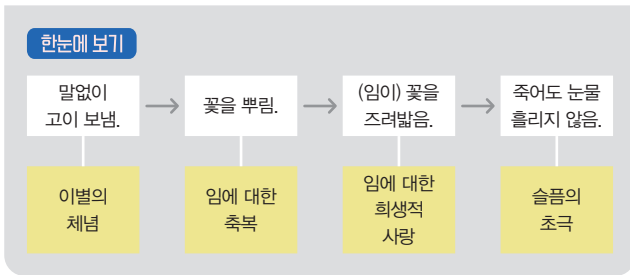
01 ④ 02 ① 03 ⑤

진달래꽃_김소월

해제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가정하여 이별의 정한과 슬픔을 드러낸 작품으로 화자, 주제 등에서 전통적 시가 문학의 요소를 계승하고 있다.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체념하던 화자가 떠나는 임을 축복하고 회생과 인고의 의지로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애상적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과 극복

- 특징**
- 7·5조,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사용함.
 -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인 '한(恨)'을 노래함.
 - 반어적 표현을 통해 '애이불비(哀而不悲)'의 정서를 드러냄.



01 이 시는 애상적 어조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며 ‘-우리다’라는 일정한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운율을 형성한다. 또한 ‘영변에 약산’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해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1연과 4연이 수미상관을 이루어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운율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대조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02 ㉠은 화자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극대화하고 있으나, 영탄적 어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화자는 자기희생의 자세로 임과의 이별을 인내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임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모답 풀이

- ②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로 어순을 바꾸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은 표면적으로 ‘슬퍼도 꼭 참고 임을 보내 드리겠다.’는 의미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제발 날 버리고 떠나지 말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④ 이 시에서 화자는 인고의 자세로 이별을 받아들이며, 임을 보내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⑤ ㉠과 같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는 자신이 느낀 이별의 한과 슬픔을 더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

03 이 시의 화자는 떠나는 임을 축복하며 이별의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반면, <보기>의 화자는 떠나는 임을 원망하며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이 시와 <보기>는 모두 3음보 율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② <보기>는 자연물을 화자의 분신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 ③, ④ 이 시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임과 재회할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1회

01 ④ 02 ④ 03 ① 04 ①

01 [A]에서는 화자가 ‘그대’를 기다리는 저녁에서 아침까지의 시간이 나타나 있고, [B]에서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 저녁에서 아침

으로’라는 시구를 통해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흐른다는 시간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시간의 특성에 반하거나 모순된 표현들이 아니므로,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 ① [A]에서는 시간을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 ② [B]의 ‘아침에서 저녁으로 / 저녁에서 아침으로’에서 시간이 지속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B]에서는 ‘아침’, ‘저녁’이라는 시간과 ‘길’이라는 공간을 결합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 ⑤ [A]에서 ‘아침’은 화자가 ‘그대’를 기다리기 시작한 시간을 나타내며, [B]에서 시간은 쇠문의 그림자가 길 위에 길게 드리운 것에서 알 수 있듯 화자의 오랜 고뇌를 의미한다.

02 나 의 화자는 ‘하늘’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끊임없이 반성하며 자아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의 화자에게 ‘미타찰’은 누이의 죽음에 따른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공간이다.

모답 풀이

- ① 나 에서 ‘하늘’은 맑고 푸른 대상으로 화자가 자아 성찰을 하도록 하는 매개체이며, 다 의 ‘미타찰’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하늘’과 ‘미타찰’이 각 시의 화자가 몸을 담고 있는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다 의 ‘미타찰’은 누이를 잃은 화자가 슬픔을 승화하는 공간으로, 비장함을 자아내는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③ 다 의 ‘미타찰’은 죽은 누이와 재회할 수 있다고 믿는 공간이지만, 나 의 ‘하늘’은 성찰을 하는 공간이지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 ⑤ 나 의 ‘하늘’은 맑고 푸른 공간이지만, 자연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다 의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간을 가리킨다.

03 가 의 화자는 ㉠의 ‘집’을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메기썩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짓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곳에 집을 짓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며, 탈속한 삶에 대한 소망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모답 풀이

- ② ㉡에서 주머니를 더듬는 행위는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찾으려는 화자가 내면적으로 방황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 ③ 나 의 돌담은 화자가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을 상징한다. 이때 ㉢에서 반복되는 ‘돌’은 이러한 장애물의 존재가 굳건함을 나타내고, 화자의 무거운 심리 또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④ ㉣에서 ‘풀 한 포기 없는’은 화자가 서 있는 길 위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량함을 나타낸다.
- ⑤ ㉤의 ‘머뭇거리고’를 통해, 누이의 죽음을 겪은 화자가 생사의 문제에 대해 고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 ‘바람’은 ㉡ ‘잎’을 떨어뜨리는 존재로, ‘이른 바람’은 누이의 이른 죽음을 상징한다. 이때 누이의 죽음을 화자의 시련으로 이해할 수 있다. A의 ‘바람’ 또한 ‘도화’를 지게 하는 존재이지만, 화자는 ‘낙화인들 꽃이 아니라’라고 말하며 바람으로 떨어진 꽃을 쓸지 않고자 한다. 떨어진 꽃은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시키고 있는 대상이기에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과는 거리가 있다.

모답 풀이

- ② ㉔와 B의 '바람'은 각각 잎이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③ ㉔는 바람에 의해 떨어지는 존재로, 죽은 누이를 의미하므로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하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반면 A의 '도화'는 떨어진 뒤에도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시키는 대상이다.
- ④ ㉔는 죽은 누이를 의미하며, B의 '나무'는 임을 그리워하다가 병이 든 화자 자신을 가리킨다.
- ⑤ ㉔, A의 '도화', B의 '나무'는 모두 '바람'에 의해 떨어지거나 쓰러지는 대상으로, 수동성을 함축하고 있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2회

01 ④ 02 ②

- 01 ㉔의 '쫓노이'는 임이 자신을 사랑해 준다면 임을 따라가겠다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고, ㉔의 '빗취어든'은 화자가 달빛에 비친 그림자가 되어 임의 옷에 가 닿고 싶다는 의미로, 임의 곁에 있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㉔의 '서울'은 화자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지만, ㉔의 '건덕궁'은 임이 있는 공간으로 화자가 '가고지고', 즉 가고 싶어 하는 공간이다.
- ② ㉔의 '질삼빔'는 갈쌍하는 벼로 화자의 생업과 관련되어 중요한 대상이지만 임과 함께할 수 있다면 기꺼이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㉔의 '빈 낙대'는 욕심 없는 화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소재이다. 따라서 '질삼빔'나 '빈 낙대' 모두 화자가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㉔의 '우리꿈'은 떠나는 임을 따라가려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고, ㉔의 '슬피 우리'는 임에게 자신의 소리가 들리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우리꿈'과 '슬피 우리'는 모두 임의 심정이 아닌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㉔의 '그초리잇가'는 임에 대한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화자의 확신이 드러나 있고, ㉔의 '반가실가'는 임이 자신을 반가워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드러낸 표현이다.

- 02 [A]의 '신'과 [B]의 '붉은 마음'은 모두 임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바위'는 그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장애물을 의미하므로, [A]의 '신'과 [B]의 '붉은 마음'을 굳건한 '바위'로 형상화하였다고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 ① '구슬'은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을, '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소재로 활용하였다.
- ③ [A]에서는 천 년을 외롭게 살아간다고 해도 임에 대한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였고, [B]에서는 낭군과 천 년을 이별한다고 해도 붉은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과 '붉은 마음'을 통해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구슬과 끈'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표현을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티프로 삼고 있는데, [A]는 고려 가요로, [B]는 한시의 형식으로 수용되었다.
- ⑤ [A]에서는 여음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B]에서는 여음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3회

038~039쪽

01 ② 02 ③

- 01 ㉔에서는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며 화자가 물을 건너 떠나는 '당신'이 돌아오리라 믿고, 재회를 고대하고 있다. ㉔에서는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이라고 가정하며 대상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㉔의 화자는 '당신'이 돌아올 것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④ ㉔는 임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작품으로,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신념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㉔에는 대조적인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㉔에는 '물'과 '불'이라는 대조적인 시어가 등장하지만 이를 통해 이별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02 ㉔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라는 구절을 통해 '물'이라는 시어가 긍정적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㉔는 '소멸과 죽음'이 아니라 죽은 나무뿌리를 적셔 다시 살리는 '정화와 재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피안'은 '사바세계 저쪽에 있는 깨달음의 세계'를 뜻한다. '나룻배'는 '행인'에게는 강을 건너게 해 주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보기>의 '작은 배'의 상징성과 연결지어 현실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세계로 데려가 주는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항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는 사랑이 은근하게 타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보기>에 제시된 '불'의 상승 이미지와 사랑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키 큰 나무'에서는 건강함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보기>에서 '나무'는 인간의 상승 욕구와 초월의 의지를 상징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연결해 볼 수 있다.
- ⑤ '넓고 깨끗한 하늘'은 완전한 합일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의 '불'에 제시된 모든 고뇌가 사라진 정화의 경지와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다.

II 산문 문학

+ 개념 확인하기

042~047쪽

- | | | | | |
|-----------|--------|------------|------------|------------|
| 1 주제 | 2 사건 | 3 직접적 | 4 심리 | 5 태도 |
| 6 ○ | 7 × | 8 절정 | 9 ○ | 10 × |
| 11 ㄱ, ㄹ | 12 시간적 | 13 시대적 | 14 ㄱ, ㄷ, ㄹ | 15 1인칭 주인공 |
| 16 전지적 작가 | 17 서술 | 18 대화 | 19 × | 20 ○ |
| 21 × | 22 전형적 | 23 전기성 | 24 권선징악 | |
| 25 희곡 | 26 현재 | 27 ㄱ, ㄷ, ㄹ | 28 영화 | 29 인물 |
| 30 지시문 | 31 × | 32 ○ | 33 × | 34 개성 |
| 35 한문 | 36 문답식 | | | |

DAY

06

구운몽 1

내신 물리기

048~049쪽

01 ⑤

02 ⑤

03 ①

구운몽 - 김만중

해제 이 글은 한글로 쓴 국문 소설이자 꿈속 이야기를 다룬 몽자류 소설이며 꿈속 양소유의 영웅적 일대기가 드러나는 영웅 소설에 속한다. '구운몽(九雲夢)'이라는 제목은 성진과 팔선녀라는 아홉 명의 등장인물(九), 인생의 부귀공명이 구름과 같이 덧없음(雲), 꿈과 현실을 오가는 구성(夢)으로 글 전체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보여 준다. 이 글에서는 비현실적 선계가 현실이고, 인간계가 꿈인 역설적인 구조를 취하며 이를 통해 꿈속의 일, 즉 세속적 욕망이 공허함을 말하고 있다.

주제 인생무상의 깨달음을 통한 진정한 삶의 가치와 불법 귀의

특징 • '현실 - 꿈 - 현실'의 환몽 구조로 이루어짐.

•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이 모두 드러나나, 불교의 공(空) 사상을 중심으로 함.

전체 줄거리

발단 이름난 고승인 육관 대사는 천축에서 당나라로 와 불도를 가르친다. 그중 제자 성진을 왕궁으로 보내 심부름을 시키는데, 성진은 돌아오는 길에 남악 형산의 위 부인을 모시는 팔선녀를 만나 서로 희롱하며 논다.

전개 절에 돌아온 성진은 팔선녀를 그리워하며 속세의 부귀영화를 꿈꾼다. 이에 육관 대사는 도술을 부려 성진과 팔선녀를 인간 세상에 환생시킨다. 속세에서 명문이 자제로 태어난 양소유(성진)는 과거에 급제하여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팔선녀가 환생한 두 부인과 여섯 첩을 거느리며 산다.

절정 세월이 흘러 벼슬에서 은퇴한 뒤 양소유는 문득 인생의 공허함을 깨닫는다. 양소유는 유교와 도교의 한계를 느끼고, 평소 참선하는 꿈을 자주 꾸는 것을 계기로 불교에 귀의할 결심을 한다. 그러자 부인들 또한 양소유와 함께 출가할 의지를 밝힌다. 이때 양소유는 한 노승을 만나 꿈에서 깨어나 성진으로 돌아온다.

결말 꿈에서 깨어나 육관 대사에 귀의한 양소유는 성진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음을 얻어 불교에 정진하고자 한다. 팔선녀도 육관 대사의 제자가 되기로 한다. 불도에 정진한 성진과 팔선녀는 이후 득도하여 극락 세계로 간다.

01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작품 전체는 '현실 - 꿈 - 현실'의 환몽 구조를 지녀 선계의 성진이 세속적인 것을 욕망하여 인간계의 양소유로 태어나 지내다가 인생무상(人生無常)을 깨닫고 선계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하지만 꿈속이나 현실에서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을 되돌려 사건을 전개하는 양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02 '나무하고 소 먹이는 아이들'은 보통 사람을 의미한다. 양소유는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신의 삶도 시간이 지나면 덧없이 사라지고 훗날 나무하고 소 먹이는 아이들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회고될 뿐이라고 하였다.

모답 풀이

①, ②, ④ '진시황의 아방궁', '현종 임금의 화청궁', '한나라 무제의 무덤인 무릉'은 모두 양 승상에게 인생이 덧없음을 느끼게 해 주는 소재로 볼 수 있다. 이 황제들은 생전에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지금은 죽고 없는 상태이다. 이에 양소유는 어떤 부귀영화도 사람이 한 번 죽은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인생은 덧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즉, 양소유는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도 언젠가 사라질, 덧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③ '남자들의 옥용화태'는 양소유의 두 부인과 여섯 첩의 아름다운 용모를 나타내는 소재이다. 외면의 아름다움 역시 일시적이고 유한하므로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 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03 '절정 1-①'에서 양소유는 '유도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해도 인륜을 밝히고 공을 세워 죽은 다음 이름을 남기는 데 그칠 뿐이고'라고 말하며 유교의 한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양소유는 자신이 입신양명을 이루었으나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답 풀이

②, ④ 양소유는 유도에 대해서는 사후에 이름을 남기는 것에 대한 허망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선도에 대해서는 신선이 되어 불멸을 얻는 것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도와 선도는 인생무상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라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③ 양소유는 유도와 선도의 한계점을 말하며 불도에 귀의하여 인간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하였다.

⑤ '절정 1-①'에서 양소유는 '내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여기에 온 후, 매일 밤 잠이 들면 꿈속에서 부들방석 위에서 참선을 하였습니다. 필시 불가와 인연이 있는 듯하오.'라고 말하며, 자신이 불도와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여 불교에 귀의하려고 한다. 이는 현실(천상계)의 성진을 양소유가 꿈으로 꿈이기도 하다.

04 불승은 성진의 스승인 육관 대사를 가리키는데, 세속의 부귀영화 때문에 갈등하는 제자 성진에게 속세의 영화로운 꿈을 꾸게 하다가 현실로 다시 인도하고 있다. 육관 대사는 성진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 양소유로 인간계의 삶을 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성진(양소유)이 꿈에서 깨어나지 못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도술을 부려 그를 꿈에서 깨움으로써 자신이 성진임을 깨닫도록 하였다.

모답 풀이

①, ② 불승은 양소유(성진)의 앞에 나타나, 성진이 자신을 못 알아보자 도술로 성진을 꿈에서 깨운다. 이를 통해 성진이 꿈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며 사건이 전환된다.

④, ⑤ 불승 즉 육관 대사는 성진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성진이 꿈을 꾸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양소유의 세계인 꿈속과 성진의 세계인 현실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05 육관 대사는 인간 세상과 꿈이 다르지 않음을 알지 못하는 성진에게 ‘장자’에 등장하는 꿈 이야기인 ‘호접지몽(胡蝶之夢)’의 고사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다. 성진은 자신이 양소유로 인간 세상에 환생한 것을 꿈을 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실과 꿈은 다른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에 육관 대사는 장자의 꿈에서 자신이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자신이 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 것처럼, 깨달음을 얻지 못한 성진이나 세속적 욕망을 쫓던 양소유나 깨닫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꿈과 현실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성진에게 이르고 있다.

06 성진은 꿈속 인간계에서 양 처사의 아들로 태어나 열여섯에 장원급제하고 토번을 물리치는 등 온갖 부귀공명을 누린다. 이후 벼슬에서 물러나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유도의 한계와 선도의 허탄함을 말하며 불교에 귀의할 뜻을 밝힌다. 따라서 덧없는 삶을 극복하기 위해 학문에 정진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① 48쪽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성진이 육관 대사의 심부름으로 용왕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남악 위 부인을 모시는 팔선녀를 만나 희롱하고, 절에 돌아와서도 팔선녀를 떠올리며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② 48쪽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육관 대사가 성진과 팔선녀를 인간 세상으로 추방하여 양소유로 환생하도록 하였다는 내용과 양소유로 환생한 성진이 과거에 급제하여 입신양명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팔선녀와 인연을 맺어 여덟 처첩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절정 2-②, ③’에서 육관 대사의 도술로 구름이 걷히며 불승과 처첩이 모두 사라진 채 작은 암자의 부들자리 위에 앉아 있었던 성진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결말-①’에서 성진은 육관 대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크게 깨달았음을 이야기하고, 육관 대사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최척전_조위한

해제 이 글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창작된 고전 소설이다. 전쟁으로 인해 최척의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재회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이 글은 평범한 인물이 전란 중에 겪는 고난과 역경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적 영웅의 활약상에 주목하였던 당시 대부분의 군담 소설들과 차이가 있으며, 실제 지명과 실제 인물을 등장시켜 현장감과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대외 무역이 활발하였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베트남 등으로 공간적 배경을 확장한 점도 특징적이다.

주제 전쟁으로 인한 가족 이산의 고통과 재회

특징 •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의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창작되었으며 당시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함.
• 17세기에 나온 대부분의 군담 소설이 민족적 영웅담을 담았던 것과 달리 평범한 인물이 겪는 고난과 역경을 보여 줌.

전체 줄거리

발단 최척은 정 생원의 집으로 공부하러 다니던 중, 옥영을 만나 혼인하여 첫째 아들 몽석을 낳는다.

수록
부분

전개 정유재란의 발발로 최척의 가족은 조선, 일본, 중국 등지로 흩어진다. 최척은 중국에서, 옥영은 일본에서 살아가다 베트남에서 우연히 극적으로 재회한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 둘째 아들 몽선을 낳는다.

위기 최척은 후금과 명나라의 전쟁에 출전하게 되어 가족과 다시 헤어진다.

절정 최척과 몽석은 전쟁 중 포로로 우연히 만나 조선으로 탈출하고, 옥영은 몽선과 며느리를 데리고 조선으로 돌아간다.

수록
부분

결말 최척의 온 가족이 20여 년 만에 남원에서 재회하여 행복하게 살아간다.

01 17세기에 나온 다른 군담 소설들(『임진록』, 『박씨전』 등)에서는 영웅적 인물이 활약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가나 민족을 보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이 글은 민족적 영웅담을 담아내는 대신 평범한 인물들이 전쟁으로 인해 겪는 고난과 역경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이 글의 가장 특징적인 점이기도 하다.

모답 풀이

- ② '전개 1-①'에서 전쟁 중에 가족과 떨어져 홀로 일본으로 끌려간 옥영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을 때, 만복사의 장륙불이 꿈속에 나타나 옥영을 만류하며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처럼 고전 소설에서는 초현실적 존재가 나타나는 비현실적 사건이 전개되기도 한다.
- ③ '전개 1-①'에서 옥영을 데려간 일본 사람인 돈우가 불교 신자라는 상황, 옥영의 꿈에 부처가 나타나는 상황 등에서 이 글이 지어진 시기에 불교의 영향력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이 글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옥영은 전쟁을 겪고 그로 인해 가족과 헤어져 홀로 지내게 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며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다. '전개 1-①'에서 옥영은 일본에 끌려가 남장을 하고, 기지를 발휘하여 자신의 앞날을 도모하고 있다.
- ⑤ 이 글에는 조선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공간적 배경이 드러난다. '전개 1-①'에는 일본의 나고야, '전개 2-①'에는 중국의 다양한 지명이 등장하고 있다.

- 02 ㉠에서 장륙불이 나타나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라고 언급한 것은 옥영과 최척이 재회하게 될 것임을 뜻한다. ㉠에서 송우가 최척에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자고 권하는 것은 이미 돈우와 함께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있던 옥영과 재회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을 뜻한다.

모답 풀이

- ① ㉠을 말하고 있는 장륙불(만복사의 부처)은 미래를 예언함으로써 앞으로의 일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새로운 조력자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을 말하고 있는 송우는 최척의 조력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최척에게 새롭게 나타난 인물은 아니다.
- ② ㉠과 ㉡은 각각 최척과 옥영이 처할 새로운 고난이 아니라 최척과 옥영의 재회를 암시하거나 재회의 계기를 마련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 ③ ㉠은 옥영이 절망적인 태도를 버리고 삶의 의지를 되찾는 계기로 작용한다. 하지만 ㉡은 최척이 '불로장생의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며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산도깨비의 이웃'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송우와 장사를 하며 계속해서 속세를 살아가는 계기로 작용한다. 즉, ㉡으로 인해 최척은 기존의 태도를 바꾸게 된다.
- ⑤ ㉠을 통해 이 글이 창작될 당시에 불교적 세계관의 영향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을 통해서도 당시 상업과 대외 무역이 발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 당시 사람들이 여러 나라를 유랑하며 살았다는 것을 추론하기는 어렵다.

- 03 '전개 1-①'에서 장륙불이 옥영의 꿈에 나타나 옥영에게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테니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전, 옥영은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옥영의 심정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는 한자 성어는 각골통한(刻骨痛恨)으로,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 또는 그런 일을 뜻한다.

모답 풀이

- ① 점입가경(漸入佳境)은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 또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꼴볼견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는 한자 성어이다.
- ② 천우신조(天佑神助)는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또는 그런 일'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이다.
- ④ 사상누각(沙上樓閣)은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오래 건디지 못할 일이나 물건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이다.
- ⑤ 절치부심(切齒腐心)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이다.



최척전 2

내신 물리기

054~055쪽

04 ③ 05 ④ 06 ② 07 ①

- 04 이 글에서는 최척과 옥영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명나라와 후금의 전쟁 등 혼란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겪는 만남과 이별과 재회의 과정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이 글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명나라와 후금의 전쟁 등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사실적으로 서술하여 당시 사회의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우의적 표현은 드러내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거나 풍자하는 방식이며, 이 글에는 사실적 서술이 주로 쓰여 대상에 대한 풍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이 글은 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이산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인물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기보다는 인물과 사회가 겪는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이 글은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거나 시대적 배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글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전개 3-①'에서 베트남의 포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며 고요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이 글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나,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는 여러 사건을 제시하여 복합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 05 옥영은 '전개 3-①'에서 최척이 분 통소 소리를 듣고, '전개 3-②'에서 통소 소리가 조선의 가락이자 귀에 익은 가락이므로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지 않은지 의심하여 시를 읊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옥영은 통소 소리로 최척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혹시 최척이 있지는 않은지 의심해 보았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모답 풀이

- ① 이 글에서는 ㉠과 같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맞추어 시간을 사실적으로 밝혀 현장감과 사실성을 느낄 수 있다.
- ② 새 울음소리만 들리는 쓸쓸하고 깊은 밤 풍경은 전쟁으로 인해 식솔과 헤어져 있는 인물들의 심정을 나타내 준다.
- ③ 최척이 가족과 헤어진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며 분 통소 소리는 옥영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또한, 이 통소 소리를 들은 옥영이 통소를 분 사람이 최척인지 의심하여 시를 읊음으로써 두 사람의 재회가 이루어진다.
- ⑤ 최척은 자신이 들은 시가 아내인 옥영이 지은 시임을 알고는 헤어진 옥영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놀라서 ㉡과 같이 반응하였다.

- 06 '전개 3-②'에서 옥영은 '시름 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 본 것이었다.'라고 하였으며, '전개 3-①'에서 최척은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전개 3-①'에 삽입된 시는 최척이 지은 시가 아니라 옥영이 지은 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07 고전 소설에서는 사건이 일어나는 필연적 동기 없이 우연적인 만남이나 상황에 의해 사건이 전개된다. '전개 3-②'에서도 헤어졌던 최척과 옥영이 우연히 근처에 있게 되어 서로 만나는 사건 전개가 나타난다.

08 '결말-②'에서 옥영은 둘째 아들 몽선, 며느리 홍도와 함께 고생한 끝에 남원에 도착하여 살던 집터에 가 보았는데, '금석교에 이르러 바라보니 성곽이며 마을이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금석교 일대의 성곽과 마을이 폐허가 되어 있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 ① '결말-②'에서 옥영의 일행이 찾아온 것을 보고 최척이 놀라 소리치자 몽석과 심 씨, 진위경이 뛰어나오는 모습을 통해 이들이 남원의 집에 함께 살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② '결말-②'에서 옥영은 가족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원 집을 가리키며 '자금은 어떤 사람이 들여와 사는지 모르겠구나.'라고 말하고 있다.
- ④ '결말-②'에서 옥영은 '아들과 며느리를 이끌고 대엿새 동안 산 넘고 물 건너며 고생'한 뒤, 마침내 남원 집에서 가족과 재회하고 있다.
- ⑤ '결말-①'과 '결말-②'에서 옥영의 일행이 통제사의 무역선을 만나 섬을 탈출한 뒤 순천 해안에 무사히 도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09 이 글의 주인공은 최척과 옥영으로, 두 인물이 겪는 전쟁 상황에서의 이별과 재회를 통해 당시 전란 속에서 살아간 민중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결말 1-①'에 '나주'라는 지명이, '결말 1-②'에 '순천'이라는 지명과 '경신년(1620) 4월'이라는 날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②, ⑤ 최척과 옥영은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번 헤어지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을 당한다. 이는 당시 전란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어야만 하였던 아픔이기도 하다. 따라서 두 사람의 고통은 당대 민중이 겪은 아픔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결말 1-②'에 '어머니와 아들이 상봉한 장면은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리라.'라고 서술자가 개입하여 재회한 가족의 기쁨을 압축하여 제시하였다.

10 최척과 옥영은 최척이 임진왜란에서 돌아온 후 첫 번째로 재회한 다음, 정유재란의 발발로 인하여 일가족이 모두 헤어지게 된다. 이후 최척과 옥영은 서로 배를 타고 타국에서 장사하던 중, 우연히 재회한다. 그러나 명나라와 후금의 전쟁이 발발하자 최척과 옥영은 다시 이별한다. 최척은 명나라에서 첫째 아들 몽석과 재회한 뒤 먼저 고국으로 돌아가고 옥영은 둘째 아들인 몽선과 며느리 홍도를 데리고 뒤늦게 남원으로 돌아간다. 남원에서는 최척과 옥영의 일가족이 일시에 재회하여 기쁨을 누린다.

모답 풀이

- ① 최척과 옥영은 약혼하였다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최척이 의병으로 참전하면서 처음으로 이별을 경험한다. 이후 임진왜란에서 돌아온 최척은 자신을 기다린 옥영과 혼인한다.
- ②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최척과 옥영의 일가족은 모두 뿔뿔이 흩어진다.
- ③ 최척과 옥영은 서로 배를 타고 타국에서 장사하던 중, 베트남에서 우연히 재회한다.
- ④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자 최척은 명나라 군사로 참전하기 위해 다시 옥영과 이별한다.

춘향전_작자 미상

해제 이 글은 춘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랑과 갈등을 그린 판소리계 소설이다. 오랜 세월을 걸쳐 여러 사람에 의해 형성된 적층 문학으로 근원 설화에서 판소리를 거쳐 소설로 정착되었다. 이 글은 이몽룡과 춘향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표면적 주제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신분 상승 욕구와 탐관오리에 대한 서민의 저항 의식을 이면적 주제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주제는 당대의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민중의 꿈과 소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주제 의식을 해학적인 표현과 토속적 어조, 판소리 문체 등을 통해 구현하고 있다.

- 주제**
- 표면적: 신분을 초월한 남녀의 지순한 사랑
 - 이면적: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과 비판

- 특징**
- 사건이나 인물의 심리에 대한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다.
 - 해학과 풍자에 의한 골계미가 나타난다.

전체 줄거리

발단 남원 부사의 아들 몽룡은 퇴기 월매의 딸 춘향과 백년가약을 맺기로 하지만 부친이 다른 곳으로 부임하면서 서울을 떠나게 되어 춘향과 이별한다.

전개 새로운 남원 부사인 변학도는 본관 사또로서 춘향을 불러내어 수청을 강요한다. 춘향은 절개를 지키기 위해 이를 거부하다가 고문을 받고 옥에 갇힌다.

위기 한양으로 올라갔던 몽룡은 장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된다. 몽룡은 남원으로 내려오는 길에 본관 사또가 학정을 일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분을 감춘 채 옥에 갇힌 춘향을 찾아간다.

수록
부분

절정 걸인 차림으로 본관 사또의 생일잔치에 간 몽룡은 한시를 지어 본관 사또를 비판하지만, 어리석은 본관 사또는 몽룡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한다. 몽룡은 암행어사로 출두하여 탐관오리를 숙청하고 춘향을 구한다.

결말 재회한 몽룡과 춘향은 남원을 떠나 서울로 함께 향한다. 서울에서 몽룡은 수많은 직책을 맡고 공무를 수행하는 한편, 춘향과의 사이에 삼남삼녀를 두고 백년해로한다.

01 판소리계 소설을 포함한 고전 소설에서는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통해 비현실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전기성을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현실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춘향과 몽룡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을 뿐 전기적 요소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02 본관 사또(변학도)는 탐관오리의 전형적 인물이다. '절정 1-①'에서 본관 사또의 생일잔치를 화려하게 치르기 위해 다과를 올리고 큰 소를 잡고 악공을 대령하고 천막을 대령하는 대목은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궁핍한 삶과 대비된다. 따라서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는다는 뜻의 한자 성어인 '가렴주구(苛斂誅求)'가 적절하다.

모답 풀이

- ① 호가호위(狐假虎威)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린다는 뜻의 한자 성어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본관이 위정자의 힘을 빌려 위세를 부리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무위도식(無爲徒食)은 하는 일 없이 놀고먹는다는 뜻의 한자 성어이다. 이 글에서 본관은 일을 하지 않는 인물이 아니라, 학정을 하여 백성들을 괴롭히는 인물에 해당하므로 이 한자 성어를 통해 본관의 정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안빈낙도(安貧樂道)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킨다는 뜻의 한자 성어이다. 이 글에서 본관은 백성들을 착취하여 호화롭게 지내고 있는 인물이므로 이 한자 성어를 통해 본관의 정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흑세무민(惑世誣民)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인다는 뜻의 한자 성어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본관이 백성들을 속이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03 어사또(몽룡)가 지은 한시에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백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치스러운 생일잔치를 벌이는 본관 사또를 비판하고, 탐관오리들의 가혹한 정치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부패한 탐관오리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어사또의 강직함을 엿볼 수는 있으나 선정, 즉 어진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답 풀이

- ① 어사또는 이 글의 주요 인물이고, 암행어사로서 본관 사또를 처단할 것이라는 새로운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 ③, ④ '절정 2-②'에서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 사또의 정체를 감안하라' 한시를 지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 ⑤ 한시를 통해 기존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작품의 긴장감을 고조한다.

04 ㉠은 본래 '나쁜 짓을 해서 이익은 자신이 챙기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어사또가 암행어사로서 본관 사또의 사치스러운 생일잔치를 엉망으로 만드려고, 학정을 일삼는 본관 사또를 벌주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말이다.

모답 풀이

- ① ㉠에는 본관 사또의 생일잔치를 화려하게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는 힘든 현실을 살고 있는 당대 백성의 모습과 대비되며 탐관오리의 사치스러운 모습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이 글은 원래 판소리로 불렸던 '춘향가'를 소설로 창작한 것으로 판소리의 여러 특징이 글 속에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과 같은 서술은 판소리에서 창자가 청중 앞에서 늘어놓던 말(사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실제로는 양반인 어사또가 걸인인 체하며 상을 발로 차고 운봉의 갈비를 가리키며 자신도 갈비가 먹고 싶다고 하는 장면은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한다. 이러한 해학적 표현은 판소리게 소설의 특징 중 하나이다.
- ⑤ 어사또는 본관 사또의 생일잔치에 참석은 하게 되었지만 변변치 않은 음식만을 대접받아 불쾌함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은 자신이 대접받은 상황과 반대되는 반어적(反語)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춘향전 2 내신 물리기

060~061쪽

05 ① 06 암행어사 출두야. 07 ③

05 암행어사(어사또)가 된 몽룡이 지방으로 내려와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탐관오리인 본관 사또를 벌하는 내용에서 당시 부패한 관리를 감찰하는 제도와 암행어사라는 벼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부패한 관리를 감찰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에서 지방 수령들의 부패가 심했고 이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06 '절정 3-②'에서 '암행어사 출두야.'라는 대사가 나온 이후, 아전들이 냇을 잃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본관 사또와 수령들이 달아나는 등 사건이 전환되며 장면의 극적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07 [A]에서는 암행어사 출도에 당황한 관리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을 뿐, 일반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모답 풀이

- ① '모든 수령 도망갈 제 거동 보소.'라며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평가를 내리고 있다.
- ②, ④, ⑤ '공방 불려 ~ 속직 단속.'과 '죄수, 별감 냇을 잃고 ~ 북과 장고라.'에서 열거와 대구를 통한 확장적 문체로 어사 출도에 허둥대는 관리들의 모습을 해학적이고 운율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춘향전 3 내신 물리기

062~063쪽

08 ① 09 ④ 10 ③

08 몽룡이 어사또로서 춘향과 재회하는 장면에서, 몽룡이 뒤늦게 춘향을 찾아온 일을 미안해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장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몽룡은 춘향의 절개를 확인해 보고자 수청을 요구하며 춘향을 시험하기도 한다.

09 ㉠은 험한 낭떠러지와 같이 드높은 것이고, ㉡은 소나무와 대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른 것으로 모두 춘향의 드높고 변함없는 절개를 의미한다. ㉠과 ㉡은 외부의 시련, 즉 춘향이 요구 받은 본관 사또의 수청을 의미한다. ㉢은 본관 사또가 수청을 강요하고 춘향이 이를 거부하면서 위기에 처한 춘향의 상황을 가을이라는 계절에 빗댄 것이다. 따라서 ㉠, ㉡은 춘향의 절개를 의미하고 ㉢, ㉣, ㉤은 춘향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

10 이 글에서 어사또인 이몽룡은 양반이고, 춘향은 기생의 딸로 서로 신분이 다르다. 따라서 춘향이 신분적 한계를 벗어나 몽룡과의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는 당대 민중의 신분 상승을 향한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기>의 도미와 도미 아내는 모두 백제의 평민이므로 신분이 같다. 따라서 <보기>에 신분 상승을 향한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모답 풀이

- ① 이 글의 춘향은 본관 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며 절개를 지키고 있고, <보기>의 도미의 아내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며 절개를 지키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본관 사또와 <보기>의 왕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이 글의 춘향은 본관 사또의 수청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고문을 받고 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지만 자신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보기>의 도미의 아내는 왕에 의해 남편과 이별하고 궁으로 잡혀 가는 등 고초를 겪지만 자신의 절개를 지키고 남편과 재회한다.
- ④ 이 글과 <보기>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위기에 처한 여인(춘향, 도미의 아내)이 고난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보기>와 같은 열녀 설화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이 글의 춘향과 <보기>의 도미의 아내는 각각 본관 사또와 왕이라는 권력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지만 절개를 지켜 낸 여인들이다. 따라서 이 글과 <보기>에는 모두 권력자에게 수난을 당하는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DAY 09

홍보전 1 내신 물리기

064~065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⑤

홍보전_작자 미상

해제 이 글은 부자이지만 부도덕한 놀보와 가난하지만 선량한 홍보가 등장하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이다. 대조적인 두 인물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조선 후기의 농토를 잃은 영세 농민과 물질적 부를 이룬 지주 간의 제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토속적인 어휘, 과장된 표현을 통해 비극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하고자 한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 주제** • 표면적: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勸善懲惡)
• 이면적: 빈부 간의 갈등

- 특징** • 과장된 표현, 익살, 해학 등을 통해 골계미를 드러냄.
• 이면적으로 빈농과 부농의 경제적 갈등을 제시함.

전체 줄거리

발단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욕심 많은 형 놀보는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착한 동생 홍보를 무일푼으로 집에서 내쫓는다.

전개 홍보는 놀보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놀보는 홍보를 흥선 두들겨 팬다. 이후 홍보는 돈을 벌기 위해 매품을 팔고자 하는 등 몹시 궁핍하게 살아간다.

위기 어느 해 봄, 홍보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치료해 준다. 그 제비가 이듬해 봄에 돌아와 박씨를 몰아다 준다.

절정 제비가 몰아다 준 박씨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와 홍보 가족은 부자가 된다. 이에 놀보는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뒤 치료해 준다. 제비는 놀보에게 몹쓸 것으로 가득찬 박을 몰아다 주고, 놀보는 큰 벌을 받아 패가망신한다.

결말 놀보의 소식을 들은 홍보는 패망한 놀보에게 자신이 가진 재산을 나누어 주며 위로한다. 이에 놀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두 사람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간다.

01 이 글은 판소리계 소설로, 판소리로 불렸던 '홍보가'를 소설로 창작한 것이다.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특정 장면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장황하게 서술하는 확대 기법을 사용하여 글의 해학성을 높인데, 이는 판소리계 소설이 갖는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전개 1-2'에서는 홍보가 매품을 팔러 가는 이유를 말하기 위해 불기 구실을 서술하는 장면이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이 장면은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한다.

모답 풀이

①, ③ 판소리는 창, 아니리, 발림, 너름새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창이란 소리꾼이 장단을 넣어 부르는 노래를 뜻한다. 이 글은 판소리 '홍보가'가 한글로 기록되어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이므로 운율감이 강하다.

02 이 글에서는 이권을 둘러싼 당대 지배층의 다름이나 비리와 같은 상황이 아닌, 조선 후기에 몰락하기 시작한 양반의 모습과 서민의 비참한 생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때 몰락하기 시작한 양반의 모습이란 홍보를 말하는데, 형 놀보로 인하여 부모님의 유산을 받지 못하고 무일푼으로 쫓겨나 가난하게 살아가는 홍보의 모습에서 이러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모답 풀이

① 홍보는 원래 양반이었지만,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매품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몰락한 양반 계층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홍보는 본음 좌수 대신 병영에 가서 매품을 파는 대가로 삼십 냥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이처럼 죄를 짓고도 돈으로 그 벌을 대신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하였고, 그것이 옹인되었던 부조리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전개 1-3'에서 홍보는 아들들을 '고의 벗은 놈'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홍보의 아들들은 고의, 즉 바지도 갖춰 입지 못할 만큼 궁핍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당시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홍보는 매품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하지만, 본음 좌수는 홍보에게 돈을 주고 처벌을 대신할 만큼 부유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목에서 빈부 격차가 극심했던 당대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03 '전개 1-③'에서 홍보가 매품을 팔러 간다고 하자 홍보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매를 맞게 될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각자 필요한 물건을 사 달라고 하며 철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큰 아들은 동생들을 나무라는 듯하다가 동생들이 요구한 것보다도 더 많고 귀한 물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매품을 팔러 가야 하는 홍보의 서글픈 처지를 드러내며 홍보가 처한 상황의 비극성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다.

04 [A]에서는 단순하게 서술할 수 있는 부분을 장황하게 서술하는 판소리의 특징과 판소리 사설 특유의 음악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홍보는 볼기 구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며 자신이 할 수 없는 다양한 일을 장황하게 열거하고 자신이 왜 매품을 팔러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

DAY 09 **홍보전 2** **내신 물리기** 066~067쪽

05 ④ 06 ① 07 ④

05 '전개 2-①'에서는 세 명의 인물이 서로 자기가 더욱 가난하다고 다투며 경쟁하듯 말하고 있다. 세 인물은 대화가 진행될수록 가난의 정도를 점점 더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해학적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대목에서 힘든 현실을 웃음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한편 홍보는 자신보다 더 가난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끝내 매품 팔이를 포기한다. 이때 홍보의 처지보다 더 불쌍한 다른 인물들의 처지가 부각되고, 과장과 해학적 표현으로 인하여 우스꽝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06 홍보의 아내는 가장과 자식을 배 풀리고 못 입히는 자신의 설움을 이야기하며 아황과 여영, 왕소군, 반첩여, 우미인, 하씨 열녀와 같은 고사 속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인물들은 모두 원통한 일을 당해 죽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홍보의 아내는 자신의 설움이 고사 속 인물들의 원통함과 다르지 않으며 자신의 괴로운 심정이 어디에 하소연하기조차 힘들 만큼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② 홍보의 아내가 고사를 인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 ③ 홍보의 아내가 언급한 고사 속 인물들이 사랑을 잃은 것은 맞지만, 홍보의 아내가 남편을 잃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홍보의 아내는 자신의 처지를 다른 인물들과 비교하지 않고, 언급한 인물들보다 자신이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홍보의 아내는 원통함을 겪은 인물들을 열거하며, 그들만큼 자신 역시 서럽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⑤ 홍보의 아내가 언급한 고사 속 인물들이 절개를 지킨 것은 맞지만, 홍보의 아내가 가난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절개를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07 이 글의 주인공 홍보는 몰락한 양반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매품까지 팔아야 하는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 하지만 ㉠에서 홍보는 궁핍한 처지를 서러워하는 아내에게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유하고, 그러다 보면 훗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며 위로를 건네고 있다. 따라서 ㉠에 드러난 홍보의 태도로는 가난해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뜻의 빈이 무원(貧而無怨)이 적절하다.

모답 풀이

- ① 이 글에서 홍보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매품을 팔아서까지 생계를 유지해야 할 정도로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돈으로 벌을 대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글의 이면적 주제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에 드러난 내용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이 글에서 매품을 거래하는 일부 권력층의 모습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에서 홍보가 양반의 무위도식하는 모습이나 양반의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에는 남녀평등 의식과 주체적 서민 의식이 표출되어 있지 않다.
- ⑤ ㉠에서 홍보는 가난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을 뿐, 가난한 처지를 벗어나고자 하거나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또한 홍보는 몰락한 양반 계층으로, 신분상 양반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DAY 10 **봄·봄 1** **내신 물리기** 068~069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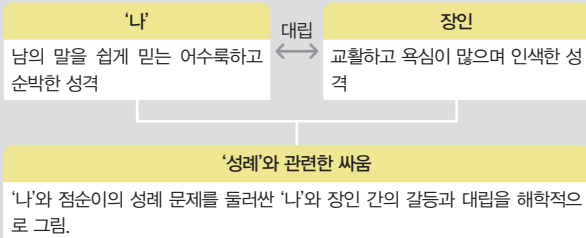
봄·봄-김유정

해제 이 글은 '나'와 점순이의 풋풋한 사랑과, '나'와 장인이 성례 문제를 놓고 벌이는 갈등을 그린 소설이다. 소설의 계절적 배경은 만물이 싹트는 계절인 봄으로, 생명력이 가득한 계절이라는 점에서 청춘 남녀의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연정의 계절이기도 하다. 이러한 봄을 맞이해 '나'와 점순이는 이성에 대한 사랑에 눈을 떠 서로가 서로에게 설렘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 글은 강원도 산골 마을의 토속적인 어휘와 어수룩한 인물의 등장, '나'와 장인의 비정상적인 싸움, 결말을 절정에 삽입한 구성 등을 통해 작품의 해학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 주제** • 어수룩한 데릴사위와 교활한 장인 사이의 갈등
• 산골 남녀의 순수한 사랑

- 특징** •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의 심리가 생생하게 드러남.
• 토속어와 비속어, 희극적 상황을 통해 해학성을 유발함.
• 시간의 흐름이 순차적이지 않고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역순행적 구성임.

한눈에 보기



01 이 글에서 비속어의 사용은 작품에 현장감과 사실성을 부여하고 해학성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비속어를 사용하여 인물들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 등장인물의 사투리 사용은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인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의 향토색을 드러내며, 현장성과 사실성을 높인다.
- 점순이의 키를 빌미로 성례를 시켜 주지 않는 장인과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나'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이 글은 인물이나 배경을 제시하지 않고 대화로 소설을 시작하며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02 '나'는 데릴사위로 들어올 때의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장인의 속셈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점순이의 키가 자라기만을 기다리며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어수룩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03 <보기>에 따르면 데릴사위 제도는 어린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일정 기간 생활한 뒤 결혼하는 것이므로, 점순이가 '나'의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가 점순이의 집에서 머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모답 풀이

- ⑤ <보기>에서 데릴사위 제도는 남자가 없는 집에서 노동력이 필요하여 실시한 전근대적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나'는 데릴사위로 점순이의 집에서 삼 년 칠 개월 넘게 무일푼으로 노동해 왔으므로 데릴사위 제도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
- ② '발단-②'의 '명색이 좋아 데릴사위지'에서 '나'가 데릴사위로 점순이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발단-②'의 '딸이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 주마 했으니'와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랴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 왔다'에서 '나'의 목적이 결혼임을 알 수 있다.
- ③ '발단-①'의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꼬박 삼 년 하고 꼬박이 일곱 달 동안을 했다'에서 '나'가 임금도 받지 않고 노동해 왔음이 나타나 있다. 또한 '발단-②'를 통해 장인이 데릴사위 제도라는 혼인 풍속을 악용하여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은 '나'가 아닌 장인이 걱정하는 것으로, 장인의 인색한 성품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모답 풀이

- ② ㉠은 '나'의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 주며 해학성을 유발하고 있다.
- ③ ㉠은 비속어를 사용하여 해학성을 유발하고 있다.
- ④ ㉠은 점순이와 동물을 비교하여 해학성을 유발하고 있다.
- ⑤ ㉠은 치성의 순서를 바꿔 말하여 해학성을 유발하고 있다.

DAY 10

볼 볼 2

나신 물리기

070~071쪽

05 ⑤

06 ⑤

07 ⑤

05 점순이와 '나'의 갈등은 성례에 대한 '나'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다. 따라서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해소된다고 해서 '나'와 장인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해결되면 ㉡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모답 풀이

- '나'는 점순이와 성례하기를 원하지만 장인은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성례를 미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 발생하고 있고, ㉡은 성례에 대한 '나'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과 ㉡은 모두 성례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 '나'는 점순이와 성례하기를 바라지만, 장인은 성례를 미루며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
- ㉡을 계기로 '나'는 마음이 들뜨고, 점순이와 성례를 올릴 것을 더욱 원하게 된다.
- ㉡은 성례에 대한 '나'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06 점순이는 성례를 올릴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라고 '나'에게 쏘아붙인 뒤, 부끄러움을 느끼고 얼굴이 빨개진 채 산으로 도망치고 있다.

07 '봄'은 초목에 물이 오르고 싹이 트며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자, 남녀가 사랑에 눈을 뜨고 가슴의 울렁임을 느끼는 사랑의 계절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사랑이 결실을 맺을 것임을 암시한다고는 볼 수 없다.

DAY 10

볼 볼 3

나신 물리기

072~073쪽

08 ②

09 ③

10 ②

08 이 글은 결말이 절정 부분에 삽입되어 있다. 이처럼 절정과 결말 부분을 역순행적으로 구성한 까닭은 희극적 싸움이 주는 긴장감과 해학성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모답 풀이

- 이 글은 절정 사이에 결말을 삽입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작품의 희극적 싸움을 부각하며 해학성을 주기 위한 것이다. 행복한 결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이 글은 공간에 따라 발생하는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보여 주고는 있으나, 사건의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 이 글은 '봄'을 계절적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 계절의 흐름이나 그에 따른 농촌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 이 글에는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 일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다. 오히려 시간의 흐름을 역순행으로 구성한 일을 보여 주고 있다.

09 '나'는 점순이가 자신의 편을 들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장인의 편을 들어서 당황하고 있다. 이러한 '나'의 심정과 어울리는 속담은 아무 염려 없다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가 적절하다.

10 '결말'에서는 장인이 성례를 약속하자 마음이 풀린 '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는 장인이 '나'와의 다툼 이후에 '나'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나'와 장인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나'가 장인에게 승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답 풀이

- ① '나'를 화유하는 장인에게 속아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는 모습에서 '나'의 순진한 면모가 나타나고 있다.
- ③ '히연'은 일제 강점기 때의 담배 이름으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장인이 성례를 약속하자 마음을 풀고, 지계를 진 채 일터로 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와 장인 사이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올갈엔 꼭 성례를 시켜 주'겠다는 장인의 말로 '나'의 마음이 풀린 것으로 보아 '나'와 장인이 겪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성례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겨울 나들이 ①

내신 물리기

074~075쪽

01 ③

02 ⑤

03 ④

겨울 나들이_박완서

해제 이 글은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가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소설로, 6·25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이 작가의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지고 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삶에 대한 허탈감으로 여행을 떠난 주인공이 여행지에서 만난 고부의 사연을 듣게 되면서 삶의 의미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 • 6·25 전쟁이 남긴 상처와 그 극복
• 삶의 참된 의미에 대한 깨달음

특징 • 외화와 내화로 이루어진 액자식 구성임.
• 여행을 떠났다가 깨달음을 얻고 다시 돌아오는 여로형 구조임.
• 전쟁이 남긴 상처와 극복을 가족사 중심으로 표현함.

한눈에 보기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 중	여행이 끝날 무렵
남편과 딸에 대한 배신감과 소외감으로 자신의 삶이 헛된 것이었다는 허탈감을 느낌.	6·25 전쟁 때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는 아주머니의 모습에 감동을 받음.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함.

01 이 글은 전체적으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절정-①~②'는 액자식 구성의 내부 이야기로 아주머니가 겪은 전쟁 당시의 이야기와 상처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절정-①'에서 이웃과 친척끼리도 서로 고자질을 하는 모습,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일 등 전쟁으로 인해 나타나는 비인간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전쟁의 참혹함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④, ⑤ '절정-①~②'는 액자식 구성의 내화로, '나'가 겨울 여행을 하며 만난 아주머니와 노파의 과거 이야기이다.

02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6·25 전쟁의 상황은 인민군 점령지 내에서 벌어진 민간인들 사이의 갈등과, 인민군이 아주머니의 남편을 죽인 것과 같은 민간인 학살의 문제이다. 인민군에 동조한 사람과 국군에 동조한 사람 간에 전투가 벌어졌다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모답 풀이

- ① '절정-①~②'에서 이웃이나 친척과 같은 가족끼리도 서로 믿을 수 없었다고 하고 있다.
- ② '절정-①'에서 미처 피난을 가지 못했지만 집에 숨어 있어야 하고, '아무개가 반동이라고' 고자질을 하면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인민군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들을 죽이 기도 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 ③ '절정-①'에서 아주머니가 자신의 남편을 친정으로 피신시켰다는 점에서 당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을 숨기거나 먼 곳으로 떠나보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절정-①'에서 '새로 득세한 패들의 기세에 심상치 않은 살기가 돌'았다고 하고 있다.

03 아주머니는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조차도 믿을 수 없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겁이 많고 순진한 시어머니가 남편의 핏에 빠져서 남편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 줄까 봐 걱정이 되어 '모른다.'를 가르친 것이다. 아주머니가 시어머니를 본인의安危를 지키고 자 자식의 거처를 실토할 인물로 본 것은 아니다.



겨울 나들이 ②

내신 물리기

076~077쪽

04 ⑤

05 ③

06 ③

04 마주 잡고 있는 고부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갠 것은 고부가 보여준 가족애에 자신을 동화시킴으로써 자신도 가족에게 돌아가 남편과 딸을 의지하며 가족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행동이다.

05 '결말-①'에서 '나'는 고부의 모습을 통해 가족에게 헌신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고귀한 가치를 깨달으며, 노파가 자신에게 헛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06 이 글에는 ‘나’가 아주머니와 노파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시 어머니를 극진하게 보살피는 아주머니의 모습에 감동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나’가 아주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분은 나오지 않으므로 ‘노파의 도리질’을 매개로 ‘나’와 아주머니가 서로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 ① ‘나’는 ‘노파의 도리질’이 “너는 결코 헛살지만은 않았어. 암, 헛살지 않았고 말고.”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다.
- ② 노파는 과거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른다’는 말과 함께 도리질을 끊임없이 연습했으나,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그때의 도리질이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노파의 도리질’은 가족에 대한 노파의 사랑이 담겨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아주머니는 시어머니의 도리질을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로 받아들여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극진히 모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⑤ 노파는 자신의 아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한 충격과 그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도리질’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고질병을 얻게 된 것이다.

01 수필은 필자가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글이다. 필자를 대신하는 가공의 서술자가 줄글 형식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것은 소설의 특성에 해당한다.

모답 풀이

- ① 수필은 필자의 경험이나 사상 등을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산문 형식으로 쓴 글이다. 또한 전문적인 작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수필을 쓸 수 있다.
- ② 수필은 자기 고백적인 문학으로, 필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므로 다른 갈래보다 필자의 정서와 가치관, 인생관 등 필자만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난다.
- ④ 수필에는 필자가 체험하거나 생각한 모든 것이 제재로 쓰일 수 있고, 이러한 제재에는 필자의 개성적 안목과 비판적 관점 등이 반영된다. 따라서 수필에는 필자의 경험과 그로 인한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이 진솔하게 나타난다.
- ⑤ 수필에는 필자가 체험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독자는 수필을 읽고 감동을 받거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02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명 인사인 피아니스트 세이모어 번스타인, 작가 사사키 후미오, 법정 스님은 모두 불필요한 소비를 추구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소비를 하는 지속 가능한 삶을 살고 있다.

03 이 글에 따르면 영화 「피아니스트 세이모어의 뉴욕 소네트」에서는 피아노가 놓인 거실에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전부인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소박한 집 내부를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으로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집 내부가 감각적이면서 화려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 ① ‘가운데-①’에서 필자는 영화 「피아니스트 세이모어의 뉴욕 소네트」가 ‘제 삶에 영향을 끼친 몇 편의 영화 가운데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 ② ‘가운데-①’에서 영화 「피아니스트 세이모어의 뉴욕 소네트」가 ‘피아니스트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밝히고 있다.
- ③ ‘가운데-①’에서 영화 「피아니스트 세이모어의 뉴욕 소네트」의 특정 장면, 즉 세이모어 번스타인이 아침에 일어나 침대를 접으면 ‘침실이 순식간에 거실로’ 바뀌고, 일과가 끝난 뒤에는 ‘다시 소파를 펼쳐 침대로’ 만드는 대목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오�히려 고귀한 삶의 방식을 엿봤다고 할까요.’라고 말하고 있다.
- ④ ‘가운데-①’에서 필자는 영화 「피아니스트 세이모어의 뉴욕 소네트」에 감명받은 이유로 ‘세이모어의 더할 수 없이 멋진 연주와 하나하나 받아 적고 싶도록 깊은 철학이 담긴 그의 대사’를 꼽고 있다.

04 ‘블랙 프라이데이’는 11월 추수 감사절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새해 무렵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쇼핑 기간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모답 풀이

- ② ‘가운데-①’에서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쇼핑 업계를 중심으로 ㉡가 빠르게 퍼졌다고 하고 있다.
- ③ ‘가운데-①’에서 ㉡는 기업들이 연말 분위기에 편승하여 소비를 부추겨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시기라고 하고 있다.
- ④ ‘가운데-①’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반응으로 과도한 소비가 언제까지고 가능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 생겨났다고 하고 있다.
- ⑤ ‘가운데-①’에서는 ㉢가 원래 11월 마지막 주 어느 날이었는데, 한 환경 단체에 의해 11월 26일로 정해졌다고 하고 있다.

DAY 12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① ▶ **나선 물리기** 078~079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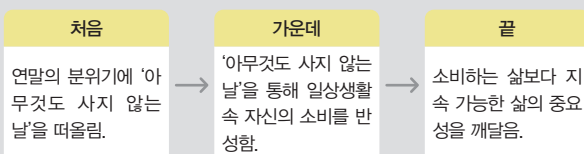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 최원형

해제 이 글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소비를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담은 수필이다. 필자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반동으로 시작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떠올리며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았던 유명 인사의 삶을 돌아본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도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최소한의 소비를 실천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주제 최소한의 소비 실천

- 특징**
- 필자의 경험을 통해 필요한 것만 사는 소비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함.
 - 유명 인사의 사례를 소개하여 독자의 공감을 끌어냄.

한눈에 보기



DAY 12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2 내신 물리기 080~081쪽
05 ⑤ 06 ④ 07 ⑤

05 필자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하려고 하였으나 밖에서는 점심을 사 먹어야 해서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필자는 도시락을 챙겼더라면 아무것도 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뿐, 필자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계획할 때 식사비는 제외하기로 했다는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모답 풀이

- ① ‘끝-1’에서 필자는 과거에는 ‘누구든 길을 떠나기 전에 끼니가 될 만한 걸 봇집 속에 넣는 일은 당연했’다고 하였다.
- ② ‘가운데-3’에서 필자가 사용하는 접시는 열 개를 넘지 않는다고 하였다.
- ③ ‘끝-1’에서 필자는 ‘인류가 지금처럼 언제 어디서든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삶을 산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④ ‘가운데-11’에서 필자는 한 달에 하루를 정해 아무것도 사지 말아야 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하고 있다.

06 이 글에서는 필자가 찬장 속 접시를 보며 소비를 반성한 사건과,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실천을 실패한 사건이 시간의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7 필자는 소비 지향적인 삶에 반대하고 있으며, <보기>의 요노족도 율로족으로 살아가는 삶에 반대하며 등장했기 때문에 ⑤의 설명이 적절하다.

모답 풀이

- ①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며 소비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율로족이며, 필자는 이러한 삶의 태도에 반대하고 있다.
- ② 율로족은 소비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므로, 외식을 즐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노족과 더 어울리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율로족이 지향하는 소비 지향적인 삶은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이 글과 <보기>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1회

01 ③ 02 ④ 03 ①

01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 성진 행자임을 깨달았다.’를 살펴보면 노승이 양소유의 춘몽을 깨우고, 꿈에서 깨어난 성진이 자신의 신분을 깨닫는다. 이는 꿈에서 현실로 장면이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높은 대와 많은 집들, 즉 인간 세상의 모습이 사라지고 암자에서 성진이 수행하는 모습과 그 주변 환경, 또 불도를 닦는 행자로서의 차림이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묘사를 통해 장면이 전환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이 글에서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 이로다.’라고 제시된 부분을 성진의 내적 독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성진이 속세에서의 삶이 꿈이었음을 깨닫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극적 긴장감을 고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이 글에서 성진과 육관 대사가 대화를 나누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성진(양소유)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대화이므로 인물 간 대립의 양상이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연나라’나 ‘토번’이라는 단어와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것에서 이 글의 배경이 중국이고 봉건 사회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시대 상황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 ⑤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에서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등장인물인 성진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 주는 내적 독백으로 이에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지는 않다.

02 노승이 양소유에게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라고 하자 양소유는 ‘사부는 어찌하면 저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라고 묻고 있다. 이를 통해 양소유가 꿈에서 깨어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양소유가 팔 낭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모답 풀이

- ① 꿈에서 깨어난 성진이 육관 대사에게 ‘사부는 설법(說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라고 말한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육관 대사가 성진에게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나?’라고 말한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꿈에서 깨어난 성진이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꿈에서 깨어난 성진이 ‘풍도옥(鄆都獄)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가,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입상(出將入相), 공명신회(功名身退)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남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03 <보기>에서 언급한 ‘첫 번째 회의를 부정’은 성진이 꿈속에서 세속적 삶을 살기 전에 가지고 있던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회의를 부정’은 성진이 꿈속에서 부귀공명을 누리다가 느낀 삶의 세속적 가치관에 대한 것이다. ‘세 번째 회의를 부정’은 꿈에서 깨어난 성진이 육관 대사로부터 얻은 참과 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은 꿈속에서의 삶(세속적 삶)이기 때문에 ‘첫 번째 회의를 부정’을 경험한 후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모답 풀이

- ② ㉠은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로서 살 때 있었던 일로, ‘첫 번째 회의를 부정’ 이후에 일어난 일이며, 불교적 삶을 선택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두 번째 회의를 부정’ 이전에 일어난 일에 해당한다.
- ③ ㉡은 성진이 꿈에서 깨어난 후의 일이지만, 참과 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육관 대사의 가르침을 받기 전의 일이기도 하므로 ‘두 번째 회의를 부정’을 경험한 직후의 일이다.
- ④ ㉢은 육관 대사가 성진에게 참과 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자 비유한 것으로, ‘세 번째 회의를 부정’의 핵심 내용을 보여 준다.
- ⑤ ㉣은 성진이 참과 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육관 대사의 가르침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여 다시 한 번 가르침을 구하는 내용으로, ‘두 번째 회의를 부정’에서 ‘세 번째 회의를 부정’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01 이 글에서는 ‘어느 봄날 밤’의 풍경을 ‘어둠이 깊어 ~ 코끝에 스며들었다’라고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옥영은 이러한 풍경 속에서 최척의 피리 소리를 듣고 ‘절구 한 수’를 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감각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이 시를 읊는 행동을 하는 등 낭만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어느 봄날 밤에 옥영이 최척의 피리 소리를 듣고 절구 한 수를 읊은 것은 맑은 정경을 보고 그에 대한 감흥을 주체하지 못하여 시를 읊은 것이다. 여기에 인물 간의 갈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안남(베트남)에서 우연히 재회한 최척과 옥영은 ‘서로 마주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텅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처럼 인물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열된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신분의 변화 과정이 나타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최척과 옥영이 결혼하는 장면에서 하인들이 기뻐하고 친척들이 축하하는 장면, 이웃 사람들이 옥영을 칭찬하는 장면에서 주변 인물이 알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옥영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척과 옥영이 재회하는 장면에서 양국의 뱃사람들이 두 사람을 구경하며 하늘의 뜻이라고 감탄하고, 옥영이 가족에 관한 슬픈 소식을 전하자 함께 슬퍼해 주는 등의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주변 인물이 옥영에 대하여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 ⑤ 최척은 전란으로 인해 가족과 이별한 뒤 명나라 배를 타고 안남에 이르러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다가 안남에서 옥영과 재회하고, 마찬가지로 전란 때문에 헤어진 아버지와 장모님의 안위를 묻지만 옥영은 두 사람의 안위를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란이라는 이전 사건에 따른 다른 인물들의 현재 행선지는 알 수 없다.

02 어느 봄날 밤 최척은 자신의 피리 소리를 들던 옥영이 절구 한 수를 읊자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이리 시를 잘 읊는 줄 모르고 있던 터라 놀라 감탄’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최척은 옥영과 결혼하기 전, 시에 대한 옥영의 재능을 모르고 있었으며, 옥영이 시를 읊기 전까지 이를 모른 척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모답 풀이

- ① ‘뱃사람들’은 처음에 최척과 옥영을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 정도로만 생각하였다가 사실은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다’로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며 놀라워하고 있다.
- ② 최척은 강독을 내려가 일본인들이 타고 있는 배 가까이 다가가 ‘어젯밤 시를 읊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닙니까?’라고 묻고 있다. 또한 자신의 처지를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라고 밝힌 후,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어젯밤 시를 읊던 조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부탁하고 있다.
- ④ 최척과 결혼하여 최척의 집에 들어온 옥영은 ‘소매를 걷고 머리를 빗어 올린 채 손수 물을 길고 절구질을 했으며,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남편을 대할 때 효와 정성을 다하고, 뒷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성의와 예의를 두루 갖추었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즉, 옥영은 정성이 가득한 마음으로 최척 일가를 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척은 결혼 후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어 재산이 점차 넉넉히 불었’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최척과 옥영의 결혼 이후 최척의 집안이 점차 부유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⑤ 최척과 옥영이 혼례를 마친 후 ‘대청에 오르자 친척들이 축하하여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쳤고, 이들을 기리는 소리가 사방의 이웃으로 퍼졌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친척들이 최척과 옥영의 결혼을 경사로 받아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웃 사람들은 정성을 다하여 최척 일가를 대하는 옥영을 보고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도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했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즉, 이웃 사람들도 옥영의 행실을 칭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03 최척은 ㉠이 되면 아내 곁에서 피리를 불곤 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은 인물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의 표지라고 볼 수 있다. ㉠은 ㉡과 같은 날들 중 하나로, 옥영이 최척의 앞에서 처음으로 시를 한 수 읊은 때이므로 ㉠은 ㉡ 중 한 시점을 특정하는 시간의 표지라고 볼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은 최척과 옥영이 후사를 걱정하며 만복사에 올라 부처께 기도를 올린 때를 뜻하므로, ㉠을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시간의 표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 옥영의 꿈에 장육금불이 나타나고, ㉡에 옥영이 아이를 잉태하여 후사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에서 발생한 갈등이 심화되는 시간의 표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② ㉡은 옥영이 아이를 잉태한 때로 후사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인물의 성격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인물이 심리적 갈등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려 주는 표지이다. ㉡은 옥영이 최척의 피리 소리를 듣고 절구 한 수를 읊은 때로, 최척은 옥영의 시 읊는 실력에 놀라 감탄하고 있다. 따라서 ㉡과 ㉢ 모두 인물의 성격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
- ④ ㉣은 최척과 옥영이 후사를 위하여 만복사에 올라 부처께 기도를 올렸던 ㉠ 중에서 하루에 해당하는 시간의 표지이다. 따라서 ㉣은 ㉠에서부터 이어진 행위를 알려 주는 시간의 표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은 최척이 피리를 불자 옥영이 절구 한 수를 읊고, 최척이 옥영의 시 읊는 실력에 감탄한 날이므로, 완결된 순간을 지시하는 시간의 표지라고 보기 어렵다.
- ⑤ ㉠에서부터 행해지던 행위가 ㉣을 거친 후 ㉡에 이르러 그 결실이 나타났고, 이에 최척과 옥영은 자식을 잉태해 아들을 낳았으므로 ㉣과 ㉡은 인물의 소망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포함되는 시간의 표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은 최척이 피리를 불 때 옥영이 절구 한 수를 읊고, 최척이 옥영의 시 읊는 실력에 감탄한 날이므로 ㉡을 인물의 소망이 좌절된 시간의 표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04 이 글에서 최척과 옥영은 안남(베트남)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타국의 공간에서 극적으로 재회하고 있다. 두 사람은 재회의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 마주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텅굴었’고,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 대목에서는 재회의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 및 과장하고 있다. 따라서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따른 인물의 불안감과 관련이 있다고 감상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① 최척과 옥영은 결혼한 후 후사가 태어나지 않자 이를 걱정하여 만복사에 올라 정성을 다해 부처에게 기도하였다. 시간이 흐른 후 옥영은 꿈에서 장육금불을 보았고, 그달에 바로 잉태하여 열 달 뒤 아들을 낳았다. 옥영의 꿈에 나타난 장육금불, 즉 만복사의 부처는 옥영이 아들을 잉태하는 데 도움을 준 신이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② 장육금불은 옥영의 꿈에 나타나 사내아이를 점지해 주면서 그 사내아이에겐 특이한 징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옥영이 아들을 낳은 후 아들의 등에는 어린아이 손바닥만 한 붉은 점이 있어 장육금불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특이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③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참전한 최척은 이후 명나라 배를 타고 장사를 하다가 안남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어젯밤 시를 읊던 조선 사람을 찾고 있다. 최척이 타국에서 '고국 사람을 만나'려 하는 것은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이 조선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나라로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④ 최척과 마찬가지로 장사를 하다가 안남에 이른 옥영은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남편인 최척을 떠올리고 감회에 젖어 절로 시를 읊고 있다. 최척 또한 시를 읊던 사람을 찾으려 일본인들의 배를 찾아가고, 두 사람은 타국에서 극적으로 재회한다. 따라서 피리 소리는 최척과 옥영의 이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계기가 되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3회

086~087쪽

01 ② 02 ① 03 ⑤ 04 ④

01 이 글에서 '나'는 장인과 대립하고 있는데, 장인이 '나'의 뺨을 때린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때 서술자인 '나'는 '작년 이맘때'의 사건, 즉 장인이 던진 돌멩이에 발목을 맞아 '나'가 태업을 하자 장인이 장가를 가게 해 주겠다고 회유하고 '나'가 이에 넘어갔던 사건을 회상하고 있다. 이 회상을 통해 독자는 '나'가 점순이와 혼인하기로 하고 장인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으며, 인물들의 관계도 함께 짐작할 수 있다.

모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서술하다가 '작년 이맘때'의 사건, '그 전날'의 사건을 순차적으로 회상하고 있다. 따라서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병치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현학적인 표현은 학식이 있음을 자랑하는 표현을 의미하는데, 이 글은 일상적인 구어체와 강원도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어 현학적인 표현을 찾아 보기 어렵다.

④ 이 글은 작중 인물인 '나'가 서술자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관찰자의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에서 작중 세계를 주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이 글에서는 '나'와 장인, '나'와 점순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그 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인 '나'가 전달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점순이는 '나'에게 밤낮 일만 하다 말 것이냐고 물으며 성례를 시켜 달라고 해야 한다고 쏘아붙이고 있다. 이는 점순이가 성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답 풀이

② '나'는 장인이 '나'의 뺨을 때린 뒤 덤덤히 쓴침만 삼키는 이유에 대해, 한창 일이 바쁜 때가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나'가 장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떠올린 것이며, 그것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실제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장인이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의 한 가지로 떠올린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장인은 가을에 혼인을 시켜 주겠다는 말을 하며 '나'를 달랬지만, 막상 가을에 '나'가 혼인을 요구하면 핑계를 대며 이를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나'와 장인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장인이 혼인을 시켜 주지 않는 데에 있다.

④ '나'는 장인이 인심을 잃은 이유가 배참봉 댁 마음으로서 행실이 고약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⑤ '동리 사람들은 그 욕을 다 먹어 가면서도 그래도 굵신굵신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장인이 횡포를 부려도 동리 사람들이 굵신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는 '나'의 태도가 드러난다. 따라서 '나'는 동리 사람들이 장인에게 보여 주는 태도와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고 할 수 없으며, 장인이 동리 사람들에게 취하는 행동을 옹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03 ㉠은 겉으로 보았을 때 점순의 키가 크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제법 성숙해져 있는 것 같다는 뜻에서 한 말이다.

모답 풀이

① ㉠은 장인의 별명이 '욕필'이라고 붙여진 이유가 장인의 본명이 '봉필'이라는 점과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② ㉠에서 괄호를 제거해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이어지므로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나'는 장인에 대한 반감을 장인이 소유한 소에게 대신 표출하고 있는데, ㉠은 그러한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은 장인이 점순이의 행동에 대해 '채신이 없이 듣까분다'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려 주는 부분이다.

04 '나'는 밭에서 일을 하던 중, 장인에 대한 반감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생긴 울화를 장인 소유의 소에게 풀고 있다. 즉, 점순이가 '나'의 화풀이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모답 풀이

① 이 글에서 '작인이 닭 마리나~땅이 똑똑 떨어진다.'라고 제시된 부분을 통하여 장인은 마음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소작인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마음이 장인과 같이 행동하였다면 소작인들이 안정적으로 소작하기 어려울 테고 이로 인하여 ㉠, 즉 농작물을 수확할 무렵, 소작인들이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② 과거를 회상하는 대목 중, 장인이 '나'에게 돌멩이를 던져 '나'가 태업을 하자 장인은 '애,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울갈에 벼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라고 말하며 '나'를 회유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장인의 회유에 넘어가 ㉠에서 이들 걸릴 일을 하루에 해치우며 일꾼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하고 있다.

③ '나'는 ㉠에서 일하던 중, 생동하는 봄 풍경에 휩쓸려 몸이 나른하고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끼며 노래를 하는 등 봄이라는 계절의 분위기에 취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나'는 ㉠에 평소와 다른 점순이의 말과 행동에서 '나'와 혼인하고 싶어 하는 점순이의 마음을 알아차린다.

III 읽기

+ 개념 확인하기

090~093쪽

- 1 사실적 2 요약 3 ㉓ 4 × 5 ○ 6 추론
7 사례 8 비판적 9 창의적 10 L 11 음독
12 통독 13 × 14 ○ 15 ㄱ 16 × 17 ×
18 읽기 목적 19 제작자 20 ㉔

DAY 13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소비'

내신 올리기

094~095쪽

- 01 ㉔ 02 ㉓ 03 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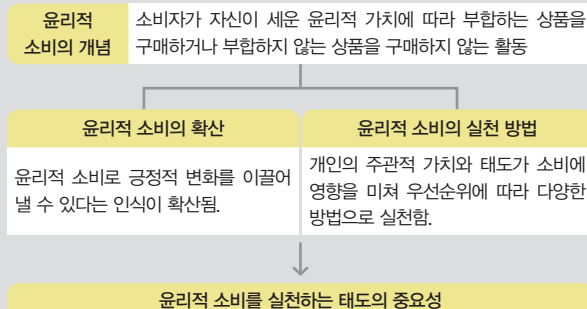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소비' - 김선화, 신효진

해제 이 글은 새로운 소비 경향을 나타내는 윤리적 소비의 개념과 등장 배경, 실천 방법을 소개하는 설명문이다. 먼저 윤리적 가치에 따라 구매를 하거나 하지 않는 소비자의 행동을 예로 들어 윤리적 소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 경향이 등장한 배경과 확산하게 된 계기를 순차적으로 설명한 뒤,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소비를 '투표'에 비유함으로써 윤리적 소비 실천의 중요성을 전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윤리적 소비의 등장과 발전

특징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한눈에 보기



01 이 글은 설명하는 글(설명문)이므로 글의 설명 대상과 설명 방법, 표현상의 특징을 고려하며 읽어야 한다. 또한 제시된 정보와 자료가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㉔와 같이 주장에 대한 근거의 타당성과 논리를 확인하며 읽는 것은 논설문과 같은 글을 읽을 때 필요한 태도이다.

02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가 자신의 윤리적 가치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는 활동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게 한다. 따라

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는 개인의 만족보다 사회적 문제를 더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가운데-㉓'에서 개개인의 관심사가 다양하듯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으며, 윤리적 소비는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② '가운데-㉑'에서는 그동안 소비자가 소비 시스템의 객체 역할만을 해 왔다는 점과 대비하여, 소비자가 소비 시스템의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이 바로 윤리적 소비임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윤리적 소비는 소비 시스템의 주체로서 올바른 소비를 지향하는 행동임을 알 수 있다.
④ '처음-㉑'에서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활동을 예로 들어 윤리적 소비의 개념을 말하고 있다.
⑤ '처음-㉑'에서 '개발 도상국의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는 공정 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윤리적 소비의 예로 들고 있다. 따라서 제품 생산자에게 적절한 임금이 주어지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 또한 윤리적 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03 '가운데-㉓'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 불매 운동을 하거나 협동조합을 매개로 구매하는 등 ㉑의 실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즉 ㉑은 ㉔과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동참할 수 있다.

모답 풀이

- ② 필자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㉑의 예로 들고 있으므로 ㉑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는 ㉔이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고 있다.
③ ㉔에서 지향하는 소비는 친환경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친환경적 소비 행위는 ㉑으로 볼 수 있다.
④ '처음-㉑'에서 '상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불매 운동을 벌이'는 것을 ㉑의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소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㉔을 실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⑤ '가운데-㉑'에서 소비자가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로 나아가려' 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㉑을 통하여 소비 시스템의 주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보기>의 ㉔ 역시 '제품을 여러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협업 소비'라는 점에서 대안적 소비 활동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㉑과 ㉔을 실천함으로써 소비자는 소비 시스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DAY 14 참된 친구란 무엇일까요

내신 올리기

096~097쪽

- 01 ㉓ 02 ㉑ 03 ㉑

참된 친구란 무엇일까요 - 박찬국

해제 이 글은 우정과 동정에 대한 니체의 견해를 서술한 설명문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니체의 말을 인용하여 글의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동정과 우정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니체의 또 다른 말을 인용하여 우정의 특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주제 니체가 생각하는 참된 친구의 의미

- 특징**
-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도움.
 - 질문으로 글을 마무리해 글의 내용을 독자의 삶에 적용하고 성찰해 보도록 함.

한눈에 보기

동정	우정
- 상대가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부재함. - 상대에 관한 믿음과 존중이 들어 있지 않음.	- 상대의 잠재력을 신뢰함. - 상대에 관한 존경과 존중이 전체 되어 있음.

01 이 글은 설명문으로, 동정과 우정에 대한 니체의 견해를 소개한 후 구체적인 예를 들며 참된 친구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모답 풀이

- 동정의 정의에 대한 니체의 견해만을 소개하고 있다.
- 우정을 인간관계와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니체의 견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 우정에 대한 니체의 견해를 설명할 뿐, 우정에 대한 이론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다.
- 우정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인간관계에서 중시되는 덕목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02 '가운데-②'에서 니체는 상대를 대할 때 동정이 아니라 우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동정에는 상대에 관한 믿음과 존중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모답 풀이

- '가운데-①'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천 원짜리 한 장을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연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동정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 '가운데-①'에서 '니체는 우정을 나누는 사이를 서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돕는 관계로 보았'다고 하였다.
- '가운데-②'에서 니체가 상대를 대할 때 우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를 설명하며,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좌절에 빠져 있으면 친구를 위로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면서' 독려한다고 하였다.
- '가운데-①'에서 니체의 견해를 설명하면서, 참된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은 상대의 잠재력, 즉 능력과 성실함을 신뢰한다고 하고 있다.

03 '가운데-④'에서 사람들에게 남들보다 우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동락'과 대비되는 것이므로, 상대보다 우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 '가운데-④'에서 우정의 특성 중 하나로 동락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 '가운데-④'에서 말하고 있는 동락, 다시 말해 상대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것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참된 친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가운데-②'에서 진정한 친구는 좌절에 빠진 친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독려한다고 하고 있다.
- '가운데-④'에서 유명인에게 달리는 악의적인 댓글에서 열등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공감의 반경

내신 물리기

098~099쪽

01 ④

02 ③

03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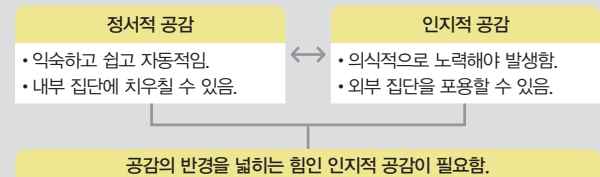
공감의 반경-장대익

해제 이 글은 공감을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으로 분류한 뒤, 인지적 공감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서론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는 문제의 원인이 공감의 부족이라는 기존 통념을 반박하고, 그 원인으로 자기 집단에 대한 과잉 공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본문에서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스티븐 핑커와 피터 싱어의 견해를 인용하여 인지적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감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공감의 반경을 넓혀야 함.

- 특징**
- 공감의 두 가지 유형을 비교하여 설명함.
 -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글의 신뢰성을 높임.

한눈에 보기



01 '본론-④'에서 인구 10만 명당 폭력에 의한 희생자 수를 비교했을 때 과거에 비해 폭력의 발생 빈도가 줄었다고 하였을 뿐 어느 정도가 줄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모답 풀이

- '서론-①'에서 '오늘날 갈등과 편 가르기 문제가 심화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공감의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기존의 통념을 반박하고 있다.
- '본론-②'에서 공감을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으로 분류한 뒤 두 유형의 개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 '본론-④'에서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와 응용 윤리학자 피터 싱어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본론-⑤'에서 정서적 공감을 '공감의 구심력'에, 인지적 공감을 '공감의 원심력'에 비유하며 '공감의 반경'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02 필자의 주장에 따르면 인류가 맞닥뜨린 문명의 위기를 해결하는 정신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감의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공감의 깊이가 아니라 넓이가 중요하다.

모답 풀이

- '본론-②'에서 ㉠은 익숙하고 쉽고 자동적이라고 하였다.
- '본론-②'에서 ㉡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 '본론-⑤'에서는 ㉠을 공감의 구심력으로, ㉡을 공감의 원심력으로 부르고 있다.
- '본론-③'에서 인간이 ㉠과 ㉡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문명을 건설해 왔다고 하였다.

03 <보기>의 해당하는 읽기 과정은 ‘읽은 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사용하는 읽기 전략으로는 <보기>에 제시된 두 가지 방법 외에도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③ 읽기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전략에 해당한다.
②, ⑤ 읽는 중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전략에 해당한다.

DAY 16 인공지능, 예술에 도전하다 ① **나신 물리기** 100~101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⑤

인공지능, 예술에 도전하다_구본권

해제 이 글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예술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설문이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희소성이 부족한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예술은 지위를 유지할 것임을 주장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예술이 가지는 지위

- 특징**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도움.
 - 질문을 하고 답함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함.

한눈에 보기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등장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 작품에 대한 기대가 커짐.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특징	인간의 창작물의 특징
• 기존 작품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함. • 희소성이 낮음.	• 창작자의 삶과 의도가 담겨 있어 우리를 형성함. • 희소성이 높음.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지위를 유지할 인간의 예술	

01 서론에서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인공지능 화가 오비어스가 그린 초상화가 예상가의 40배가 넘는 43만 2,500달러에 낙찰이 이루어졌다는 사례를 언급함으로써 글의 내용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02 이 글에서는 과거에는 인간만이 창의성을 지닐 수 있다는 통념이 있었지만 최근 인공지능 역시 작품을 구현해 내는 수준이 인간에 필적하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론 1’에서 인

공 지능이 창작한 예술 작품도 뛰어난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래서 창의성을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여기기 어려워졌다고 하였다.

모답 풀이

- ① ‘본론 1-①’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미적 가치를 인정받고 소장 투자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③ ‘본론 1-②’에서 여태까지는 창의성이 인간만의 능력이라고 보는 통념이 있었지만, ‘최근 인공지능이 구현해 내는 기술적 수준을 보면 창의성을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고집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④ ‘서론-①’에서 인공지능 화가 오비어스는 과거 예술 작품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미지를 분석해 초상화 구성 요소를 학습한 후 작품을 창작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⑤ ‘본론 1-①’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유명 작가의 작품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면서 사람들에게 인공지능 예술의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하게 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03 예상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작품은 ㉠ ‘유명 작가 작품’이 아니라 ㉡ ‘에드몽 드 벨라미’로, 예상 낙찰가는 1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실제로는 43만 2,500달러에 낙찰되었다.

04 과거에는 창의성을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은 창의적인 일을, 기계는 반복적인 일을 담당한다면 대부분의 직업과 직무가 기계로 대체될 것이라는 불안과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었다.

DAY 16 인공지능, 예술에 도전하다 ② **나신 물리기** 102~103쪽

05 ⑤ 06 ⑤ 07 ⑤ 08 ⑤

05 ‘본론 1’에서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창의성을 발휘하는 예술의 영역을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본론 2’에서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06 이 글의 필자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에는 희소성이 낮고 예술 작품이 갖는 고유한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인간의 예술 작품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의 예술은 그 지위를 유지하고 확장될 것이라고 하였다.

07 필자는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만의 능력이라고 여겨졌던 창의성을 발휘하여 정교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난 그림을 그렸다 해도 그 그림에서는 창작자의 생애와 정신을 찾기 어려운 인간의 예술과 같은 희소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필자는 인공지능의 창작물과 인간의 예술은 작품은 구별될 것이라고 하였다.

모답 풀이

- ①, ②, ③ 이 글에서 인간의 창작물의 특성으로 필자가 언급한 내용이다.
④ 인간이 인공지능을 도구 삼아 인공지능의 창작물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할 것으로 필자는 예측하고 있다.

- 08 <보기>에서 반 고흐가 불우한 여건 속에서도 예술을 추구했고, 그의 삶과 예술을 향한 열정이 그의 작품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 고흐의 작품은 그의 숨결이 깃들어 있고 작품 고유의 아우라가 담겨 있기 때문에 희소성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DAY 1 영화「업(UP)」 비평문 1 나신 올리기 104~105쪽

01 ① 02 ④ 03 ③ 04 ⑤

영화「업(UP)」 비평문_이동진

해제 이 글은 영화「업(UP)」에서 인물이나 배경을 형상화한 방법, 사용된 음악,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등을 다룬 비평문이다. 영화「업(UP)」을 감상한 필자가 영화를 통해 있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리며 감상적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주제 영화「업(UP)」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비평과 근거

특징 • 영화「업(UP)」의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고 평가함.
• 영화의 소재와 필자의 경험을 연관 지으며 글을 마무리함.

한눈에 보기

영화「업(UP)」에 대한 필자의 평가

꿈과 모험이라는 애니메이션 분야의 영역에 충실함.

영화「업(UP)」을 비평한 요소

- 영화「업(UP)」의 줄거리
- 영화「업(UP)」 캐릭터 디자인과 배경의 특징
- 영화「업(UP)」에 사용된 음악의 효과
- 영화「업(UP)」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 영화「업(UP)」의 인상적인 장면
- 영화「업(UP)」과 필자의 경험을 연관시킨 가치

- 01 이 글에는 한 매체 자료에 대한 필자의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매체 자료인 영화「업(UP)」의 시작 장면을 언급하며 독자의 궁금증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02 이 글은 영화에 대한 비평문으로, 이러한 비평 자료에는 매체 자료에 대한 필자의 관점이나 태도가 드러난다. 비평 자료를 읽을 때에는 필자의 관점과 태도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관점이 타당한지 편견이 들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03 ㉠, ㉡, ㉢, ㉣은 모두 영화의 주인공 '칼'이 죽은 아내 '엘리'와 약속했던 남미 여행을 뜻한다. 하지만 ㉤ '이층집'은 '칼'과 '엘리'가 현실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을 가리킨다.

- 04 매체 자료를 비평할 때는 자료의 내용과 주제, 표현 방법, 매체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 매체 자료의 가치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매체를 수용하는 수용자의 삶을 현실적으로 반영했는지 분석할 필요는 없다.

DAY 2 영화「업(UP)」 비평문 2 나신 올리기 106~107쪽

05 ③ 06 ④ 07 ⑤ 08 ⑤

- 05 이 글은 영화「업(UP)」에서 '칼'의 각진 외모와 '러셀'의 둥근 외모가 서로 대조되면서 흥미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이는 두 인물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모답 풀이

- ① 이 글은 영화의 인물이나 배경의 형상화 방법, 사용된 음악,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영화를 분석하고 있다.
②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필자는 영화 시사회에서 받은 빨간 풍선을 바라보며 자신이 있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꿈이 떠올랐으며 자신의 경험을 영화와 연결하고 있다.
④ 필자는 다양한 비평 요소를 통해 매체 자료를 비평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며 비평문을 읽는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필자가 영화를 보고 와서 꽃병에 풍선을 꽂자, 자신의 어린 날의 꿈이 생생히 떠올랐다는 감상적인 서술로 독자에게 여운을 주고 있다.

- 06 이 글의 필자가 꼽은 영화「업(UP)」의 인상적인 장면은 영화의 초반부와 후반부이다. 초반부는 '칼'과 '엘리'의 결혼식부터 '엘리'의 죽음까지를 짧게 요약한 대목이고, 후반부는 '칼'이 공책을 보다가 '엘리'가 '칼'에게 남긴 문장을 발견하는 대목이다.

모답 풀이

- ① 필자는 '가운데-②'에서 '각진 외모를 강조한 '칼'과 둥그스름한 외모의 '러셀'을 대비시킴으로써 흥미를 배가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② 필자는 '가운데-③'에서 '세상을 떠나 그 여행에 동행할 수 없었던 '칼'의 아내 '엘리'는 반복되는 테마 음악을 통해 강력하게 상기됨으로써 그 여정에 내내 함께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③ 필자는 '가운데-②'에서 '캐릭터 디자인은 삼등신에 가깝게 머리를 크게 그림으로써 만화적이고 정감 어린 인물의 느낌을 강조했다. 반면에 배경은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표현력으로 생생히 살려 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⑤ 필자는 '가운데-④'에서 '지나간 시간에 대한 추억과 다가올 시간에 대한 꿈이 함께하는 이 특별한 여행은 머무르면서 떠나는 역설을 풍선에 매달린 집으로 선명하게 시각화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 07 ㉠ '꿈'은 이 글의 필자가 영화「업(UP)」을 감상하고 영화관에서 받은 빨간 풍선으로 인해 떠올린 자신의 어린 날의 꿈이다. 이처럼 필자는 매체 자료를 비평하며 필자의 경험과 연관된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08 이 글은 인물이나 배경의 형상화 방법, 사용된 음악,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인상적인 장면, 필자의 경험과 연관된 가치를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비평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작품과의 영향 관계를 다루지 않고, 하나의 매체 자료인 영화「업(UP)」만을 비평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1회

01 ④ 02 ② 03 ② 04 ③

01 4문단에서 민간 위탁 업체가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며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공공 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공공 서비스의 수익 선정 양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모답 풀이

- 1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언급되어 있다.
- 2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는 정부임이 언급되어 있다.
- 3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 배경이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임이 제시되었으므로 공공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배경은 이 글에서 언급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 5 이 글에서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방식으로 '경쟁 입찰 방식, 면허 발급 방식,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음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방식은 이 글에서 언급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02 [A]에서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 뒤 국방이나 치안, 이용자가 공공 도서관의 도서 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

모답 풀이

- 1 [A]에서는 공공 서비스의 특성을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특성이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 3 '비유'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A]에서의 대상은 '공공 서비스'인데, [A]에는 공공 서비스의 가치나 효용을 빗대어 설명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 4 [A]에서 공공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문제점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내용 또한 제시되지 않았다.
- 5 [A]에서는 대상인 공공 서비스의 제공 목적, 공급 주체, 특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03 4문단에서 민간 위탁 제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 평가와 개선이 지속적이지 못할 때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모답 풀이

- 1 과거에 공공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음을 밝힌 뒤, 그 영향으로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공공 서비스가 사회 기반 시설의 공급에 집중된다는 설명은 바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③ 면접 발급 방식의 개념과 예, 면허 발급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설명하고 있으나 이 내용만으로 민간 위탁이 대부분 면허 발급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없다.

④ 민간 위탁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 중 보조금을 주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다른 방법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위탁에 의해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면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민간 위탁의 세 가지 방식인 경쟁 입찰 방식, 면허 발급 방식,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민간 위탁 방식이 한 가지 방법으로 단일화되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4 ㉔의 '경감(輕減)될'은 '부담이나 고통 따위가 줄어서 가볍게 될'의 뜻을 지닌다. '손익이 계속 경감될'에서 '손익(損益)'은 '손해와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는 '경감될'과 의미상 호응을 이루지 않는다.

모답 풀이

- 1 ㉔의 '열람(閱覽)'은 '책이나 문서 따위를 죽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봄.'이라는 뜻을 지닌다. '서류의 열람'에서 서류는 책이나 문서 따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㉔를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 2 ㉕의 '충당(充當)'은 '모자라는 것을 채워 메움.'이라는 뜻을 지닌다. '자금 충당'은 모자라는 자금을 채워 메움이라는 의미가 되므로, ㉕를 사용한 표현으로 적절하다.
- 4 ㉖의 '개선(改善)'은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들.'의 뜻을 지닌다. '무역 수지(貿易收支)'는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나라와의 수입과 수출을 모두 계산한 수치'를 나타낸 말이다. '무역 수지 개선'은 이 수치가 부족한 것을 고쳐 더 좋게 만든다는 의미가 되므로, ㉖를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 5 ㉗의 '저해(沮害)'는 '막아서 못 하도록 해칠'의 뜻을 지닌다. '사회 발전을 저해할'은 '사회 발전을 막아서 못 하도록 해칠'의 의미가 되므로, ㉗를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2회

01 ② 02 ③ 03 ⑤ 04 ⑤

01 전통적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갑'이 전통적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선택한 행동을 했다면, 어느 특정한 사람의 행복을 우선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동한 일로 인해 얻어진 행복이 최대일 것이라는 판단 아래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모답 풀이

- 1 전통적 공리주의에서는 행복의 양을 최대로 산출하는 데 의미를 두기 때문에 '갑'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행동했을 것이다.
- 3 전통적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사람은 따라 행복의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전통적 공리주의가 공평주의라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 ④ '갑'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쪽으로 결정했을 것이므로 다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온다고 믿었을 것이다.
 ⑤ '갑'은 행동의 결과가 선하다는 기준과, 자신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행복을 증진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02 전통적 공리주의자인 민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집단 B의 무고한 한 사람을 지목하여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집단 간의 충돌을 막을 것이다. 즉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방향이 선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거짓 증언으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행동이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정의를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반공리주의자들은 민우가 정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복의 총합만을 생각하며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모답 풀이

- ① 피해자를 설득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용서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반공리주의자들의 입장과 맞아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②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의 불확실성은 더욱 위험하다는 것이 2문단에 제시되어 있고, 반공리주의는 전통적 공리주의가 지닌 정의의 소홀을 비판하는 입장이므로 이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는 일에는 정의를 소홀히 한 부분이 없으므로 반공리주의자들이 전통적 공리주의자들에게 지닐 생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⑤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증언할 경우에는 두 집단의 갈등을 더 악화시켜 행복의 총량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취할 태도라고 볼 수 없다.

03 <보기>의 의무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 [A]에서 언급된 규칙 공리주의의 사례를 살펴보면, 규칙 공리주의자는 '좋은 사회'라는 결과를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에 의존하여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규칙 공리주의자는 공리주의에 정의의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모든 규칙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② 의무론자는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가치 있는 것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③ 규칙 공리주의자만이 결과에 의존하여 행동을 결정한다.
 ④ 규칙 공리주의자는 공리주의도 정의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정의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04 ⑤의 원칙에 '따른다'는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한다'는 의미이므로 ㉠과 유사한 뜻으로 사용되었다.

모답 풀이

- ①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따르다'의 뜻 중에서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의 의미이다.
 ② 사람을 잘 따른다는 것은 '좋아하거나 존경하여 가까이 좇다.'라는 의미이다.
 ③ 남들을 따라 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므로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④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좇아 같은 수준에 이른다는 의미이므로 '앞선 것을 좇아 같은 수준에 이른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3회

111~112쪽

01 ③ 02 ② 03 ①

01 디지털 피아노의 각 건반에는 3개의 센서가 있는데 건반의 눌림 동작을 감지하는 센서가 가장 먼저 작동하고, 나머지 두 개의 센서는 건반을 누르는 세기를 순차적으로 감지한다.

모답 풀이

- ① 1문단의 '각 건반의 소리는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녹음되어 내장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② 2문단의 '각 건반마다 설치된 3개의 센서가 감지한다.'에 의하면 각 건반에는 같은 수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④ 4문단의 '샘플링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소리 파동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에 의하면 소리 파동 모양의 정보는 샘플링을 통해 이루어진다.
 ⑤ 5문단의 '양자화 표는 일반 피아노가 낼 수 있는 소리의 최대 변화 폭을 일정한 수의 구간으로 나눈 다음, 각 구간에 이진수로 표현하는 부호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할당된 표이다.'에 의하면 각 구간마다 할당된 이진수 부호는 같을 수 없다.

02 각 건반에 있는 3개의 센서가 건반의 눌림 동작과 건반을 누르는 세기를 감지하면, 내장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CPU)는 감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건반의 소리 데이터를 저장 장치에서 읽고 소리의 크기를 조절한다. ㉠을 통하여 샘플링된 소리의 측정값은 디지털 피아노의 작동 과정이 아니라, 건반의 소리를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녹음할 때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얻은 소리 파동의 모양을 수치화한 것이다.

모답 풀이

- ① 각 건반에 있는 3개의 센서는 건반의 눌림 동작과 건반을 누르는 세기를 감지하는데 건반을 누르는 세기는 건반이 움직이는 속도로 감지한다.
 ③ 건반의 센서로부터 건반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CPU는 해당 건반에 대응하는 소리 데이터를 저장 장치로부터 읽어 온다.
 ④ 건반의 센서로부터 건반을 누르는 세기가 감지되면 CPU는 음의 크기가 적절하도록 소리 데이터를 처리하여 디지털-아날로그 신호 변환 장치(DAC)로 보낸다.
 ⑤ DAC는 CPU가 보낸 소리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꾼다.

03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소리 파동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파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고, 구간마다 파동의 크기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것을 샘플링이라고 한다. '각 주기마다 데이터가 하나씩 생성되기 때문에 샘플링 주기가 짧아지면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데이터도 많아진다.'라고 하였으므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개수는 설정한 시간 간격과 관련 있으며 소리 파동의 모양과는 관련이 없다.

모답 풀이

- ② 5문단의 '자릿수가 늘어나면 양자화 구간의 간격이 좁아져 소리를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에서 알 수 있다.
 ③ 5문단의 '양자화 구간의 개수는 부호에 사용되는 이진수의 자릿수에 의해 결정된다.'에서 알 수 있다.
 ④ 5문단의 '양자화는 샘플링을 통해 얻어진 측정값을 양자화 표를 이용해 디지털 부호로 바꾸는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⑤ 4문단의 '이때의 시간 간격을 샘플링 주기라고 하는데, 이 주기를 짧게 설정할수록 음질이 좋아진다.'에서 알 수 있다.

- 01 [A]에서는 영화가 평범한 사람들의 회고나 증언, 구전 등의 비 공식적 사료를 토대로 만들어져 주변화된 집단의 문혀 있던 목소리를 표현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역사' 형성에 기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한다면 기억이나 구술 증언은 허구일지도 모르므로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에 나타난 역사가의 관점에서 보면, 영화가 담고 있는 사실 정보는 허구일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사실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사료로서의 가능성이 낮다.
 ② ㉠에 나타난 역사가의 관점에서 보면, 하층 계급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같이 허구를 포함한 자료가 아닌, 실제로 고증이 된 역사적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에 나타난 역사가의 관점과 영화가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내용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또한 이 글에서는 영화가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같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가려진 역사를 끌어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③의 내용은 [A]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에 나타난 역사가의 관점에서 역사 사료로서의 영화를 비판할 때는 영화가 주관에 매몰된 역사 서술이라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화된 집단의 목소리가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주목할 것이므로 ④는 [A]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 02 이 글의 3문단에서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영화에 담겨 있는 역사적 흔적과 맥락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마르탱 게르의 귀향」과 달리 「서머스비」는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되었지만, 이 역시 19세기 중엽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서머스비」를 통해 당시 대중이 공유하던 욕망과 생활상 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에 담겨 있는 역사적 흔적과 맥락을 검토하는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를 시도할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보기>에 따르면 「서머스비」는 가짜 남편을 마을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온 지도자로 묘사하면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대중의 욕망을 반영했다고 하였다. 이는 3문단에 언급된 영화 제작 당시 대중이 공유하던 욕망, 강박, 믿음 등의 집단적 무의식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③ 이 글의 3문단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자기 나름의 시선을 서사와 표현 기법으로 녹여 역사를 비평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마르탱 게르의 귀향」 역시 그 속에 영화인 나름의 시선이 표현 기법으로 나타났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역사적 고증에 바탕을 두고 당시 사건과 생활상을 충실히 재현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이 글의 1문단에 따르면 미시사 연구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중점적인 주제로 다루고, 재판 기록 등의 '서사적 자료'에 주목하였다고 하였다. 역사서 「마르탱 게르의 귀향」 역시 16세기 중엽 프랑스 농촌의 보통 사람들 간의 사건을 다루고, 당시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시사 연구의 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IV 듣기·말하기

+ 개념 확인하기

116~117쪽

- 1 ○ 2 × 3 주제 4 청중 5 ㄱ, ㄴ
 6 협상 7 조정 8 ○ 9 ○ 10 사회적 11 출처



발표하기

나신 물리기

118~119쪽

- 01 ③ 02 ② 03 ③ 04 ② 05 ③ 06 ③

- 01 이 발표는 뇌 과학 측면에서 창의적 존재의 특징과 창의적 존재가 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발표자는 청중이 창의성에는 관심이 있지만 창의성과 지능의 상관관계, 뇌와 신경 과학에 대해서는 지식 수준이 높지 않다고 분석하여 자세한 설명을 준비하였다.

모답 풀이

- ① 발표자는 발표를 들을 청중들이 뇌 과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적다고 예상하고 청중에게 뇌 과학 측면에서의 창의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만 시간의 법칙'을 예로 들고 실험 과정을 설명하는 등의 전략을 선택하였다.
 ② 청중이 창의성에 관심이 있으나 창의성에 대한 배경지식이 많지 않다고 예상하고 2에서와 같이 창의성과 지능의 관계를 청중에게 질문하고 있다.
 ④ 발표자는 청중이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을 것이다.
 ⑤ 발표자는 청중의 연령대와 지식 수준을 고려하여 '창의성', '지능 지수' 등과 같은 용어를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 02 1은 발표의 단계 중 도입부에 해당한다. 도입부에서는 발표의 주제, 목적 등 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발표자는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라는, 발표와 관련된 질문을 하며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발표자는 4에서 '에프엠알아이(fMRI)'라는 용어의 뜻을 밝히며 청중이 발표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③ 발표자는 3에서 '만 시간의 법칙' 이론의 출처를 밝히며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발표자는 2에서 창의성과 지능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청중의 웃음을 유발하고, 발표 분위기를 부드럽게 조성하고 있다.
 ⑤ 발표자는 3과 4에서 '만 시간의 법칙', '에프엠알아이(fMRI)' 등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청중의 배경지식을 확인한 후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03 2~5는 발표의 단계 중 전개부에 해당한다. 전개부에서는 다양한 자료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 내용을 전개한다.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는 것은 전개부가 아니라 도입부에서 사용하는 발표 전략이다.

모답 풀이

- ① 발표의 과정 중 '예상 청중 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② 발표의 과정 중 '발표 목적·주제 선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④ 발표의 과정 중 '발표 진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04 ㉠에서 발표자는 청중의 표정이나 몸짓을 통하여 청중이 '에프 엠알아이(fMRI)'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파악한 뒤 해당 용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다.

05 발표 내용을 정리할 때는 예상 청중의 지식 수준이나 관심사, 배경지식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발표 내용을 준비해야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06 <보기>의 '학생 2'는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활동의 실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세우지 않았으므로 ㉢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 ① <보기>의 '학생 1'은 청소년의 적정 운동 시간은 몇 시간인지를 더 알아보고 싶어 하며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보기>의 '학생 1'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운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④ <보기>의 '학생 3'은 발표의 마지막 부분인 ㉤에서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라는 내용의 의미를 궁금해하고 있다.
- ⑤ <보기>의 '학생 3'은 창의적인 순간이 있을 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발표자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였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 만족하고 있다.



협상하기 내신 물리기

120~121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③

01 이 협상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멸종 위기 야생 생물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사랑천 산책로 연장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산책로 연장 계획을 원하였던 희망구 주민들과 협상을 진행하며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모답 풀이

- ① '희망구 주민 대표'는 ㉠에서 '사랑천에 수달이 서식한다는 건 그만큼 그 일대의 자연환경이 건강하다는 뜻이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 ② '희망구 주민 대표'는 ㉡에서 주민들이 여가와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주택 지역에 이미 많다고 하였다. '희망구 주민 대표'는 사랑천 산책로의 연장을 바라고 있으며, '미래시 공무원'은 이러한 희망구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
- ③ '미래시 공무원'과 '희망구 주민 대표'는 수달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이 아니라 기존의 산책로 연장 계획을 수정하면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④ '희망구 주민 대표'는 ㉢에서 생태 교육 시설이 생기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사랑천 산책로 연장을 바라는 주민들의 바람을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02 협상은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글의 ㉢은 양측이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상호 검토한다는 점에서 조정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양측이 입장과 목표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03 이 협상에서 '희망구 주민 대표'가 기존 산책로의 폭을 넓히자고 제안하자 '미래시 공무원'은 기존 산책로 보수, 위험 방지 시설 확충 등 대안을 제시하며 상호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에 나타난 '희망구 주민 대표'의 발화 '사랑천 주변을 ~ 충족하진 못합니다.', '생태 복합 ~ 넓히는 겁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에 나타난 '희망구 주민 대표'의 발화 '주택 지역에는 ~ 세 곳이나 되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에 나타난 '미래시 공무원'의 발화 '기존에 계획한 ~ 옮겨 조성하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과 ㉣에 각각 나타난 '희망구 주민 대표'의 발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 반가운 제안.', '새로 만들 ~ 참여할 수 있을까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 ㉢에서 '희망구 주민 대표'는 생태 교육에 도움이 되는 시설의 건축을 반기고 있고, ㉣에서는 새로 만들 생태 복합 시설의 공간 조성 계획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희망구 주민들은 사랑천 산책로의 연장 대신 생태 복합 시설을 건설하는 데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에서 기존 산책로를 넓히는 대신 산책로를 보수하고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 받았다. ㉣의 '미래시 공무원'의 말을 통해 산책로를 보수할 것을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희망구 주민 대표'는 ㉢에서 기존 산책로의 폭을 넓히자고 제안하였으나 '미래시 공무원'이 공사가 수달의 서식지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② 기존 산책로를 연장하는 대신 주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상을 하게 되었다.
- ③ '미래시 공무원'은 ㉡에서 산책로 연장 구간을 주택 지역 근처로 옮기고자 하였으나 '희망구 주민 대표'가 반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④ '미래시 공무원'과 '희망구 주민 대표'는 산책로 연장 공사로 인하여 수달의 서식지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05 사회적 소통 과정에서 책임감 있게 듣고 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소통 윤리를 지켜야 한다. <보기>에서 철민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소통 윤리를 지키지 않았다. 소연은 철민의 행위를 비판하며 철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사회적 소통 윤리를 지키지 않았다. ㉢에서 중의적 표현이란 한 단어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말한다. <보기>의 철민은 잘못된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나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생각을 모호하게 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모답 풀이

- ①, ②, ④, ⑤ 듣기·말하기 행위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담론과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므로 책임감 있게 듣고 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수능으로 실력 썰기 1회

122쪽

01 ⑤

- 01 발표의 3문단에서 발표자는 꾸구리 눈이 개폐된 모습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밝은 곳에서 눈이 피부로 덮인 사진과 어두운 곳에서 눈이 드러난 사진을 나란히 놓아 제시하였다. 따라서 두 사진을 화면에 순차적으로 제시해야겠다는 발표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모답 풀이

- 발표자는 1문단에서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물고기가 눈을 감은 모습을 상상해 볼 것을 청중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어서 발표자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잘 떠오르지 않으시죠?'라고 말하고,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눈꺼풀이 없어 눈을 감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 발표자는 2문단에서 말뚝망둑어 눈의 개폐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눈이 아래의 구멍으로 들어가면 눈 아래의 피부가 올라와 눈을 덮어 주고, 이어서 눈이 다시 올라오면 피부가 내려가서 눈이 다시 열린다. 이는 눈과 눈 아래 피부의 움직임을 순서대로 설명한 것이다.
- 발표자는 말뚝망둑어와 둥근망둑어의 눈 근육 그림을 비교하고, 말뚝망둑어 눈 근육이 둥근망둑어에 비해 기울기가 훨씬 가파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말뚝망둑어의 눈 근육은 수축하며 안구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눈을 닫을 수 있는 것이다.
- 발표자는 2문단에서 말뚝망둑어의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고, 4문단에서 꾸구리의 사진을 제시하여 두 물고기의 눈 개폐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수능으로 실력 썰기 2회

123쪽

01 ⑤

- 01 Z동 대표는 ㉠에서 Z동 주민들이 Y동의 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 예상되는 Y동의 이익과 Z동의 부담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요금에 대한 부담', 즉 Z동의 부담을 낮춰 달라고 말하며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모답 풀이

- Y동 대표는 ㉠에서 도서관 설치가 Y동뿐만 아니라 Z동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 Y동 대표는 ㉠에서 Z동 주민 복지 센터에 도서관을 만들자고 말하며 체육 시설이 필요하다는 Z동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 Z동 대표는 Z동 주민들이 Y동에 있는 체육 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 부담을 줄여 달라고 제안하였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발언이다. Z동에 체육 시설과 도서관 중 무엇을 설치할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체육 시설의 설치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Z동 대표는 ㉠에서 Y동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Y동이 체육 시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Z동 주민들이 얻은 부담을 언급하고 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Z동에서 양보해 주었으면 하는 바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V 쓰기

+ 개념 확인하기

126~127쪽

- 1 보고서 2 조사 3 명료한 4 ○ 5 ×
6 (1)-㉠ / (2)-㉡ 7 ⑤ 8 근거 9 논증 방법

DAY 20

보고하는 글 쓰기

내신 물리기

128~129쪽

- 01 ⑤ 02 ④ 03 ② 04 ④ 05 ⑤ 06 ④
07 ④

- 01 공동 보고서를 쓸 때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역할을 맡거나 너무 적은 역할을 맡지 않게 역할을 적절히 나누어야 한다.

모답 풀이

- 모든 구성원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 서로 의견을 조율하며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구성원과 공유하며 협력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공동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서로의 생각을 연결하여 새로운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

- 02 보고서를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그 자료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 자료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03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먼저 주제와 작성 계획을 정한 뒤(㉠) 목적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주제와 작성 계획에 따라 자료를 적절히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04 보고서의 주제는 모든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나 조사해 보고 싶은 분야를 선정한 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다. 독자의 흥미를 끄는 요소는 보고서에 넣을 매체의 활용 방안과 관련 있는 것이다.

- 05 공동 보고서는 크게 '머리말, 본문, 맺음말'로 구성되며,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는 머리말에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

모답 풀이

- 공동 보고서의 머리말에서는 연구 동기를 밝히고,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소개하는 것이 적절하다.
- 공동 보고서의 본문에서는 연구를 진행한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 내용과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공동 보고서의 맺음말에서는 조사한 연구 결과를 요약한 내용과 함께 연구 소감을 서술할 수 있다.

- 06 ㉠의 학생들은 청소년의 운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의 ㉠에서 '아니요(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부분을 공동 보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2020년과 13~18세에 해당하는 조사 결과이다.

07 제시된 목차에 따르면, 1학년 학생들의 운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 간의 연관성이 작성하고자 하는 공동 보고서의 주제이다. 그런데 ④는 보고서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모답 풀이

- ① 나.의 ㉠을 자료로 활용하여 ㉡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인터넷 뉴스를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로 보여 줌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② 나.의 ㉢을 자료로 활용하여 ㉣를 제시할 수 있다.
- ③ 나.의 ㉤에 제시된 표를 활용하여 ㉥를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 ⑤ 보고서에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DAY 21

01 ③ 02 ⑤ 03 ⑤ 04 ③ 05 ⑤

논증하는 글 쓰기 내신 물리기

130~131쪽

01 논증 요소로는 필자가 내세우는 의견인 주장,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인 이유, 주장을 지지하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가 있다.

02 나.와 다.에서는 금융 이해력 향상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개별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귀납을 사용하고 있다. 연역은 라.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실용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일반적 사실에서 개별적 사실을 이끌어 내는 데 사용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② 나. 다.에서 서민 금융 진흥원, 금융 감독원과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출처를 제시하며 글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③ 가.에서 중·고등학생들의 금융 이해력이 부족한 문제 상황을 점수로 제시하며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④ 기.에서 '금융 이해력'이라는 특정 개념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03 가.에서 2023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금융 이해력 평균 점수가 46.8점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금융 이해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04 다.에서 '신상 털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잇힐 권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필자는 잇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본 것이므로, ③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5 <보기>는 개인의 잇힐 권리보다 공공의 알권리를 중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반론을 예상한 것이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잇힐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공공의 알권리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모답 풀이

- ① 개인의 잇힐 권리의 중요성을 축소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② 기.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거나 게시 당시의 기준으로 불법 정보가 아닌 경우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밝히며 개인의 잇힐 권리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③ 개인의 잇힐 권리를 인정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예상 반론에 해당한다.
- ④ 개인의 잇힐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와는 서로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으로 적절하지 않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1회

01 ③ 02 ⑤

132쪽

01 이 글의 필자는 나.에서 ㉠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불량 식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을 뿐 불량 식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언급하거나 이러한 변화를 시기별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모답 풀이

- ① 나.의 1문단에서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불량 식품은 ~ 식품을 말한다.'라고 언급하며 ㉠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나.의 2문단에서는 '예를 들어, 저렴한 군것질거리는 ~ 유해한 불량 식품이다.'라고 언급하며 ㉡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나.의 3문단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불량 식품 판매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4문단에서는 '식품 이물'에 대한 업체의 소극적 대응에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라고 언급하며 ㉢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나.의 3문단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제도, 4문단에서는 이물 보고 의무화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을 구체화하고 있다.

02 ⑤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식품 유통 ~ 출시되고 있다.'에는 교지 편집부장의 조언 중 식품 산업의 변화와 관련지으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고, ⑤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이 변화에 맞춰 ~ 우리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에는 교지 편집부장의 조언 중 독자가 글의 중심 내용을 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식품 산업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만, 독자가 글의 중심 내용을 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식품 산업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만, '허위 광고나 과대광고로 홍보하는 식품의 신고 방법'은 글의 중심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독자가 글의 중심 내용을 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는 내용은 나오지만, 식품 산업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식품 산업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만, 독자가 글의 중심 내용을 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의 뒷부분인 '식품 업체는 소비자의 ~ 집중할 전망이다.'에서는 독자가 아니라 식품업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 01 초고의 2문단에서는 청소년의 감정 관리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어 프로그램 확대 실시는 필요 없다는 예상 반론을 제시한 뒤, 기존의 감정 관리 프로그램이 소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적인 상담 활동만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을 말하며 예상 반론을 반박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초고의 1문단에서는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 원인으로 '감염병 유행에 따른 일상의 변화'라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의 원인을 항목별로 유형화하고 있지는 않다.
 ② 초고에는 통념을 언급하는 내용, 통념의 모순을 지적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초고의 3문단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감정 관리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 주장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초고의 3문단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청소년 감정 관리 프로그램의 실시 대상 확대와 활동 내용 다양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 02 [A]에서는 초고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의 접근 방향인 '실시 대상의 확대'와 '활동 내용의 다양화' 중 전자만을 언급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초고를 고쳐 쓰는 과정에서 교사는 '해결 방안 중 일부만 제시되어 있으니 글에서 다른 주장을 모두 포함하는 게 어때?'라고 조언할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A]에서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감정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며 실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② [A]에서는 예상 독자를 지역 구성원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④ [A]에서는 초고와 거리가 먼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보기>와 비교하였을 때 특별히 삭제된 부분을 찾기도 어렵다.
 ⑤ [A]에서는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이라고 말하며 문제 해결 방안의 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VI 문법

+ 개념 확인하기

136~137쪽

- 1 ○ 2 × 3 ○ 4 세로쓰기 5 8중성법
 6 이어 적기 7 음운 8 × 9 ○ 10 ○
 11 ○ 12 가없게 13 축소

DAY 22

중세 국어 내신 물리기

138~139쪽

- 1 ③ 02 ·하느·니 03 ② 04 ③ 05 ④ 06 ④
 07 ·노·미 08 ③

- 01 '보르·매'에서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합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02 현대어 풀이를 참고하면 '여·름·하느·니'는 '열매가 많으니'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하느·니'의 기본형인 '하다'는 '많다'는 의미로 쓰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 03 '·쁘·들'의 '·쁘', '·뿌·매'의 '·뿌', '쑈르·미니·라'의 '쑈'처럼 음절의 첫소리에 연속으로 둘 이상 오는 자음을 어두 자음군이 라고 한다. '·내·이·를爲·왕·호·야'에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아래아)' 음운이 사용된 것과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모답 풀이

- ① 모음 조화는 양성 모음(·, ㅏ, ㅗ)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ㅡ, ㅓ, ㅕ)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려 사용하는 현상이다. '·쁘·들'은 음성 모음(ㅡ)끼리 어울려 모음 조화가 드러난다.
 ② 8중성법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초성으로 만들어진 17자들 중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 자음만 받침으로 사용하는 표기법이다. '스뫼·디'는 '스뫼다'의 어간인 '스뫼-'의 'ㅅ'이 'ㅅ'으로 표기되어 8중성법이 드러난다.
 ④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병(순경을 비음), ㅅ(옛이음), ㅅ(반치음), ㅎ(여린히음), ·(아래아)' 등이 쓰였다. '수·비'에는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진 '병(순경을 비음)'이 나타난다.
 ⑤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 모든 글자를 붙여 썼다.

- 04 ㉠은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한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 하여서'라는 의미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언어생활의 차이를 인식했다는 점에서 자주 정신이 드러난다. ㉡은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라는 의미로,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엾게 여겼다는 점에서 애민 정신이 드러난다. ㉢은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씹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문자를 창제했다는 점에서 실용 정신이 드러난다.

05 ‘말ㅅ·미’, ‘ㅅㅅ·미니·라’ 등을 통해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06 <보기>에서는 ‘어·린’이라는 어휘가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지녔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그 의미가 ‘나이가 적은’이라는 다른 의미로 이동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어엿·비’ 또한 중세 국어에서 ‘가엿게’라는 의미로 쓰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게’라는 뜻으로 의미가 이동하여 쓰이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전·초 → 까닭
- ② 수·비 → 쉽게
- ③ 수·디 → 통하지
- ④ 무·춤·내 → 마침내

07 <보기>는 중세 국어의 어휘상 특징 중 어휘의 의미 영역이 좁아지는 ‘의미의 축소’를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 나타난 ‘노·미’에서 ‘놈’은 중세 국어에서는 보통 사람을 의미하였으나 현대 국어에 이르러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의미가 축소되어 사용되고 있다.

08 ‘쁘·들’은 ‘쁘+을 → 뿌들’로, 음절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ㄷ)이 쓰였고, 이어 적기가 사용되었다. 중세 국어에서는 주로 이어 적기가 사용되었으며 현대 국어로 오면서 점차 끊어 적기를 사용하였다.

모답 풀이

- ① 나·랏·말ㅅ·마: ‘나라의 말’이라는 의미로 중세 국어에서는 무정 명사나 높임의 대상 뒤에 관형격 조사 ‘ㅅ’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中東國·꺈·예달·야: ‘중국과 달라’라는 의미로 중세 국어에서는 비교를 나타내는 비교격 조사 ‘예’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니르·고·저·흙·배이·셔·도: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라는 의미로 ‘배’는 주격 조사 ‘이’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ㅇ’이 아닌 모음 뒤에 ‘ㅣ’ 형태로 붙은 것을 알 수 있다.
- ⑤ 날·로·뿌·메: ‘날마다 썸메’라는 의미로 ‘뿌·메’의 어간 ‘쁘-’에 명사형 어미 ‘-음’이 붙어 명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개념 확인하기

140~143쪽

- 1 ○ 2 ○ 3 ○ 4 소리, 어법 5 형태
 - 6 단어, 조사 7 × 8 ○ 9 두음 법칙 10 실패율
 - 11 구개음화 12 내년 13 × 14 ○ 15 ○
 - 16 × 17 원형 18 -이 19 ○ 20 ○ 21 ×
 - 22 × 23 봤다 24 췌 25 의존 명사 26 팽이
- 가 돌아가고 있다.



한글 맞춤법

내신 올리기

144~145쪽

- 01 ④ 02 ① 03 ⑤ 04 ② 05 ③
- 06 ① 07 ③ 08 ⑤

01 ‘더워’, ‘더우니’는 어간의 본 모양인 ‘뒹-’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은 말에 해당한다.

모답 풀이

- ① ‘너무’는 [너무]로, ‘눈물’은 [눈물]로 소리 나며, 이는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 ② ‘국물’은 [궁물]로, ‘같이’는 [가치]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적음으로써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③ ‘늑고’는 [늑꼬]로, ‘늑지’는 [늑찌]로 소리 나서, 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그 본뜻을 알기 어렵다. 그렇기에 어간과 어미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 ⑤ 한글 맞춤법 총칙에서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은 하나의 말이라도 소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래의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형태를 고정하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02 ㉠ ‘끝이’는 [끄치]로 소리 난다. 한글 맞춤법 제6항에 따라 ‘ㄷ’이 [ㅈ]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ㅌ’으로 바르게 적었다. ㉡ ‘해쓱하다’는 [해쓰카다]로 소리 난다. 이는 두 모음 사이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경우로, 제5항에 따라 그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은 것이다.

모답 풀이

- ㉢ 해도지 → 해돋이: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돋-’에 접미사 ‘-이’가 붙어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해돋이’로 적는다.
- ㉣ 잔득 → 잔뜩: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데, 이때 ‘ㄴ, ㄹ, ㄹ, ㄹ’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다. ‘잔’의 ‘ㄴ’ 받침 뒤에 ‘뜩’이 된소리로 소리 나므로 된소리로 적는다.
- ㉤ 깎뚜기 → 깎두기: ‘ㄱ, 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깎’의 ‘ㄱ’ 받침 뒤에 나는 [뚜]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03 <보기>에서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고 하였다. ‘백분룰’의 ‘룰’은 ‘ㄴ’ 받침 뒤에 이어지므로 ‘율’로 적는다.

모답 풀이

- ①, ② 양심(良心), 예의(禮儀):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 ③, ④ 개량(改良), 쌍룡(雙龍):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 이외에 올 경우,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 1]에 따라 본음대로 적는다.

04 ‘사라지다’는 ‘살다’라는 말과 무관하게 쓰이므로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고, ‘쓰러지다’는 ‘쓸다’라는 말과 무관하게 쓰이므로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05 ‘날날이’는 명사 뒤에 ‘-이’가 붙은 말로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으며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

모답 풀이

- ① 책이오 → 책이오: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 ② 되 → 돼: 어간 모음 ‘ㅛ’ 뒤에 ‘-어’가 결합하여 ‘내’로 줄어드는 경우, ‘내’로 적는다. ‘되-’에 ‘-어’가 결합한 ‘돼어’가 준 것이므로 ‘돼’로 적는다.
- ④ 급유 → 급류(急流):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지만,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급류(急流)’에서 한자음 ‘류’가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곳에 위치하므로 본음대로 ‘류’로 적는다.
- ⑤ 살림사리 → 살림살이: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어간 ‘살-’에 ‘-이’가 붙어 명사가 되었으므로 ‘살림살이’로 적는다.

06 ㉠의 ‘올 듯도 하다’는 제47항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규칙에 따르면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으므로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인 ‘하다’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은 바르게 쓰인 문장이다.

07 ‘저 마다’의 ‘마다’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08 ㉠은 [인뫼], [뫼:머리]로 소리 나고,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에 해당하여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넷뫼’은 ㉠처럼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넛:뫼]로 소리 나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말이다. 하지만 ‘넷잎’은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 [넛닙]으로 소리 나는 말로 ㉠과 같은 예에 해당한다.

모답 풀이

- ① ㉠은 [제:산날], [훈:날], [뫼:마루/뫼:마루]로 소리 난다. ‘제삿날’은 ‘제사(祭祀)+날’, ‘훗날’은 ‘후(後)+날’, ‘뫼마루’는 ‘뫼(退)+마루’로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에 해당한다.
- ② ㉡은 [귀뫼/귀뫼], [나루뫼/나루뫼], [부시뫼/부시뫼]로 소리 난다.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에 해당한다.
- ③ ㉢은 [전세집/전세집], [해쑤/해쑤]로 소리 난다. ‘전세집’은 ‘전세(傳貰)+집’, ‘해쑤’는 ‘해+수(數)’로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에 해당한다.
- ④ ㉣은 [배궐], [궐]으로 소리 난다.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에 해당한다. ㉠, ㉡, ㉢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단어의 예이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1회

146쪽

01 ① 02 ①

01 ㉠은 중성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사용한다는 중성의 제자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자료>에서 중성이 있는 것은 ‘분, 스궤, 뻑, 흙’이다. ‘분’의 중성은 ‘ㄷ’, ‘스궤’의 중

성은 ‘ㄷ’, ‘뻑’의 중성은 ‘ㄱ’, ‘흙’의 중성은 ‘ㄷ’과 ‘ㄱ’이다. ‘흙’의 ‘ㄷ’은 중성 합용 병서에 해당한다. 이때의 중성은 모두 초성에 있는 글자를 사용하였으므로, ㉠에 해당하는 예는 ‘분, 스궤, 뻑, 흙’ 총 4개이다. 따라서 <학습 활동>에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모두’ 고르라고 하였으므로, ㉠의 수행 결과는 적절하지 않다.

모답 풀이

- ② ㉡는 순경음의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순경음이 쓰인 예를 찾으면 된다. <자료>에서 순경음이 쓰인 것은 ‘사뵐, 스궤’로, 각각 순경음 ‘ㅁ’이 쓰였다. 따라서 ㉡는 <학습 활동>의 수행 결과로 적절하다.
- ③ ㉢는 초성이나 중성에서 초성자 두 글자나 세 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쓰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뫼니’에서는 ‘뫼’에 ‘ㅁ’이, ‘뻑’에서는 ‘ㅁ’이, ‘흙’에서는 ‘ㄷ’이 나란히 쓰였다. 따라서 ㉢는 <학습 활동>의 수행 결과로 적절하다.
- ④ ㉣는 ‘붙여 쓰기’ 중에서 초성 글자의 아래에 중성 글자를 붙여 쓰는 ‘하서(下書)’에 대한 설명이다. <자료>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쓰인 것은 ‘분, 스궤, 흙’으로, ‘분’에는 ‘ㄷ’, ‘스궤’에는 ‘ㄱ, ㄷ’, ‘흙’에는 ‘ㄷ’를 초성 글자의 아래쪽에 붙여 썼다. 따라서 ㉣는 <학습 활동>의 수행 결과로 적절하다.
- ⑤ ㉤는 ‘붙여 쓰기’ 중에서 초성 글자 오른쪽에 중성 글자를 붙여 쓰는 ‘우서(右書)’에 대한 설명이다. <자료>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쓰인 것은 ‘뫼니, 사뵐, 뻑’으로, ‘뫼니’에는 ‘ㄱ’, ‘사뵐’에는 ‘ㄱ, ㄷ’, ‘뻑’에는 ‘ㄱ’를 초성 글자의 오른쪽에 붙여 썼다. 따라서 ㉤는 <학습 활동>의 수행 결과로 적절하다.

02 ㉠의 ‘나리’는 현대어 풀이 ‘날이’를 고려할 때 ‘날+이’가 연결 표기된 것으로 자음 ‘ㄷ’ 뒤에 주격 조사 ‘이’가 실현된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의 ‘아드리’는 현대어 풀이 ‘아들이’를 고려할 때 ‘아들+이’가 연결 표기된 것으로 자음 ‘ㄷ’ 뒤에 주격 조사 ‘이’가 실현된 경우이다. 따라서 ㉠, ㉡는 모두 ㉠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모답 풀이

- ② ㉡의 ‘나리’는 ‘날+이’로 분석되므로 자음 ‘ㄷ’ 뒤에 주격 조사 ‘이’가 실현된 경우, 즉 ㉠에 해당한다. 그런데 ㉢의 ‘孔子’는 현대어 풀이 ‘공자가’를 고려할 때 ‘孔子(공자)+’로 분석되므로 모음 ‘이’와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 ‘ㅏ’ 뒤에서 주격 조사 ‘ㅣ’가 실현된 경우에 해당한다. 즉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는 ㉠에 해당하지만 ㉢는 ㉠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③ ㉢의 ‘太子’는 현대어 풀이 ‘태자’를 고려할 때 주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음운 조건에 관계없이 생략된 경우, 즉 ㉡에 해당한다. 그리고 ㉣의 ‘두리’는 현대어 풀이 ‘다리가’를 고려할 때 모음 ‘이’나 반모음 ‘ㅣ’ 뒤에서 주격 조사가 ‘ㅇ(영형태)’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즉 ㉡에 해당한다. 따라서 ㉢는 ㉡에 해당하지만 ㉣는 ㉡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④ ㉣의 ‘太子’는 주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음운 조건에 관계없이 생략된 경우, 즉 ㉡에 해당한다. ㉡의 ‘아드리’는 ‘아들+이’로 분석되므로 자음 ‘ㄷ’ 뒤에 주격 조사 ‘이’가 실현된 경우, 즉 ㉠에 해당한다. 따라서 ㉢, ㉣ 모두 ㉡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⑤ ㉤의 ‘두리’는 현대어 풀이 ‘다리가’를 고려할 때 ‘두리’ 뒤에 오는 주격 조사가 모음 ‘이’ 뒤에서 ‘ㅇ(영형태)’로 실현되는 경우, 즉 ㉡에 해당한다. ㉢의 ‘孔子’는 ‘孔子(공자)+’로 분석되므로 모음 ‘이’와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 ‘ㅏ’ 뒤에서 주격 조사 ‘ㅣ’가 실현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 ㉣ 모두 ㉡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2회

01 ② 02 ① 03 ④

147쪽

- 01 파생어는 어근+접사(접사+어근)로 이루어진 단어, 합성어는 어근+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무덤’은 ‘묻-+-엄’, ‘지붕’은 ‘집+-웅’으로 분석되는 파생어이다. ‘무덤’과 ‘지붕’ 모두 어근인 ‘묻-’과 ‘집-’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았으므로 ㉠에 해당한다. ‘뒤뜰’은 ‘뒤+뜰’, ‘쌀알’은 ‘쌀+알’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뒤뜰’과 ‘쌀알’ 모두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모답 풀이

- ① ‘길이’는 ‘길-+-이’로 분석되는 파생어이고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마중’은 ‘맞-+-웅’으로 분석되는 파생어이며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았으므로 ㉠에 해당한다. ‘무덤’과 ‘지붕’ 또한 ㉠에 해당한다.
 ② ‘뒤뜰’과 ‘쌀알’은 ㉡에 해당하고, ‘무덤’과 ‘지붕’은 ㉠에 해당한다.
 ③ ‘길이’는 ㉠과 ㉡ 모두에 해당하지 않고, ‘무덤’은 ㉠에 해당한다. ‘뒤뜰’과 ‘쌀알’은 ㉡에 해당한다.
 ④ ‘마중’과 ‘지붕’은 ㉠에 해당한다. ‘길이’는 ㉠과 ㉡ 모두에 해당하지 않고, ‘쌀알’은 ㉡에 해당한다.

- 02 ㉠의 [아니요]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된 말로, 문장의 끝에 놓였으므로 [아니요]로 소리 나더라도 종결형 어미 ‘-오’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 적용을 받아 ‘아니오’로 표기해야 한다.

모답 풀이

- ㉠ [가지요]의 ‘요’는 종결 어미 ‘-지’ 뒤에 덧붙은 보조사이다. ‘영화 구경 가지.’가 하나의 완결된 문장으로 성립됨을 통해 ‘요’가 보조사임을 알 수 있다. ㉡에서 어미 뒤에 덧붙는 보조사 ‘요’의 표기를 규정하였다.
 ㉢ [설장이요]의 ‘요’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열거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이며, ‘이-’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이다. ㉣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장이요’로 표기해야 한다.

- 03 ‘높이’의 어근 ‘높-’에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으므로 한글 맞춤법 제23항을 적용하여 ‘노피’를 ‘높이’로 고쳐야 한다는 탐구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높이’는 어간 ‘높-’에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19항을 적용하여 ‘높이’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모답 풀이

- ① ‘돌아가다’는 ‘돌다’와 ‘가다’가 결합한 합성 동사로, 앞말인 ‘돌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제15항 [붙임 1]을 적용하여 ‘도라가다’를 ‘돌아가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드러나다’는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그 본뜻에서 멀어진 동사이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제15항 [붙임 1]을 적용하여 ‘드러났다’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얼음’은 어간 ‘얼-’에 ‘-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이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제19항을 적용하여 ‘얼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홀쭉이’는 어근 ‘홀쭉-’에 ‘-이’가 결합한 명사로, 한글 맞춤법 제23항에 따라 ‘홀쭉이’를 ‘홀쭉이’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VI 매체

+ 개념 확인하기

150~151쪽

- 1 ④ 2 〇 3 × 4 〇 5 수단
 6 전파 7 〇 8 × 9 ② 10 의사소통
 11 윤리



24 매체 비평 내신 올리기

152~153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④

- 01 매체 비평 자료를 제작할 때 해당 자료를 비평한 비평 자료를 찾아보고, 자신이 비평한 내용과 비교하면 매체 자료에 대한 자신의 시야와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비평 자료와 자신이 비평한 내용 간에 차이가 크다고 해서 다른 매체 비평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할 필요는 없다.

모답 풀이

- ① 매체 비평 자료를 제작할 때는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체 자료에 담긴 내용의 타당성, 표현 방법의 적절성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② 매체 비평 자료를 제작할 때는 해당 매체 자료를 비평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자신이 비평한 내용과 비교하면 자신의 관점을 넓힐 수 있다.
 ③ 매체 비평 자료를 제작할 때는 자료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매체 자료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타당하게 제시해야 한다.
 ④ 매체 비평 자료를 제작할 때는 매체 자료에 담긴 제작자의 관점이나 의도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자신의 매체 비평 자료에 드러낼 수 있다.

- 02 <보기>와 같은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매체 자료를 제작한 사람, 매체 자료를 수용할 대상자, 매체 자료에 담긴 가치나 주제, 가치나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 등을 파악하여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03 ㉠은 인터넷 기사로, 표제와 부제를 통하여 각각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독자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인식하도록 돕고 있다. 본문에서는 인공 지능이 그린 그림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상반된 입장을 균형 있게 보여 주고,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의 역할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04 ‘비평 자료 2’는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의 입장이 계속 바뀌면서 핵심어가 선순환되는 과정이 잘 드러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존중과 배려’라는 핵심어 안에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다 보니 광고의 핵심 메시지가 흐려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비평 자료 1'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한 요소가 부족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② '비평 자료 1'에서는 광고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의성 있게 다루어야 하는 주제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비평 자료 2'에서는 광고의 형식 때문에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 ③ '비평 자료 2'는 **㉠**에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배려를 받는 사람이 다시 배려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작위성을 줄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비평 자료 1'과 '비평 자료 2'는 모두 광고에서 다루는 주요 메시지를 비평 요소로 삼고 있다.

DAY 25 매체의 변화 **나신 올리기** 154~155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⑤ 05 ①

- 01 인쇄 매체는 문자뿐 아니라 사진, 그림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인쇄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이전에 비해 단기간에 대량으로 인쇄물을 생산하고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④에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인쇄 매체가 아니라 디지털 매체의 특징이다.
- 02 시간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매체는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인쇄 매체, 전파 매체, 디지털 매체 등으로 발전해 왔다. 그 중 전파 매체는 전자 기술의 발달로 등장해 음성과 영상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공간의 제약을 덜 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대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그러나 정보 제공자가 한정적이고,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소통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03 기술이 발전하며 디지털 매체가 출현한 현재에는 누구나 매체 자료를 생산하고 수용하게 되면서 정보 제공자가 다양해지고,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경계도 무너지고 있다. 정보 제공자가 한정적이라는 것은 과거의 매체 의사소통의 한계로, 전파 매체에도 해당한다.
- 04 이 매체 자료는 디지털 매체 중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해당한다. 과거에 개인은 주로 정보를 수용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디지털 매체가 발달하면서 개인도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모답 풀이

- ① 디지털 매체는 정보의 파급력과 확산 속도가 빠르다.
- ② 디지털 매체는 음성 언어뿐 아니라 문자, 이미지, 이모티콘 등이 결합된 다양한 양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디지털 매체는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소통이 자유롭다.
- ④ 디지털 매체는 자료의 내용을 다른 시·공간으로 옮기는 것에 제약이 적다.

- 05 **㉠**은 편지를 기반으로 한 소통이고, **㉡**는 온라인 대화를 기반으로 한 소통이다. **㉢**은 문자 언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수용자의 소통이 일방향이다. 또한 언어 규범을 준수하며 의사소통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② **㉠**은 문자 언어를 활용하여 언어 규범을 준수하며 의사소통하고 있다. 줄임말과 같은 언어적 특성은 **㉡**와 같은 디지털 매체에서 주로 드러난다.
- ③ **㉡**는 온라인 대화에 기반하여 상대방과 실시간·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의사소통이 일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다.
- ④ **㉡**는 문자 언어를 비롯하여 사진, 이모티콘 등의 다양한 기호를 함께 사용하며 의사소통하고 있다. 언어 표현을 생략하고 있지는 않다.
- ⑤ **㉠**과 **㉡**는 모두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매체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수능으로 실력 쌓기 156~157쪽

01 ② 02 ① 03 ⑤ 04 ③

- 01 '진행자'가 시청자의 내용 파악을 돕기 위해 짜장면이 복수 표준어로 인정받게 된 이유를 간략히 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는 앞에서 제시한 정보를 정리하여 전달하고 있다.

모답 풀이

- ① **㉠**은 시청자에게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텔레비전 방송이다. '진행자'가 오늘 진행된 방송을 방송 후에도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전문가'가 방송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방송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방송의 첫머리에서 '진행자'가 '전문가'를 소개하고, '진행자'와 '전문가'는 예전에는 짜장면이 아닌 자장면만 표준어로 인정했던 사실에 관해 문답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이 방송에서 다루는 주요 용어인 복수 표준어나 주요 화제인 짜장면과 자장면의 개념에 대해 '전문가'가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진행자'는 방송 내용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을 뿐, 방송 내용을 재확인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⑤ '진행자'는 '전문가'를 소개하고, 방송의 중심 화제를 언급하며 방송될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진행자'가 방송의 취지를 밝히거나 방송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2 **㉡**의 '생각 나눔'에서 게시물의 제목과 작성자, 작성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게시물 아래 '수정하기' 버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물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게시물을 수정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에 따로 제공되어 있지 않다.

모답 풀이

- ② **㉡**의 "'오늘, 상식' 방송을 보고"라는 게시물 아래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버튼을 제공하고 있다. '좋아요'는 게시물을 읽는 사람이 게시물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③ 나 의 “오늘, 상식” 방송을 보고”라는 게시물 아래에는 ‘누리 소통망 공유’를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위치하고 있다. 이 ‘누리 소통망 공유’ 버튼은 게시물을 누리 소통망, 즉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가져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④ 나 의 누리집 상단에 게시물을 작성하여 올릴 수 있는 범주가 ‘공지 사항’, ‘활동 자료’, ‘생각 나눔’, ‘사진첩’의 항목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 의 “오늘, 상식” 방송을 보고”라는 게시물 아래 게시물 작성자가 어문 규범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링크를 걸어 두겠다고 하며 “오늘, 상식” 10회 차 다시 보기 ≡ 클릭”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게시물에 다른 누리집에 있는 정보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3 나 에서 ‘성호’는 방송에서 다른 과거 신문 기사를 통해 자장면과 짜장면이 함께 쓰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신문 기사에 짜장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기사가 쓰일 당시에 짜장면이 일상에서 널리 쓰였다고 일반화해도 되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성호’는 과거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 적절한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 방송에서 다른 정보가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모답 풀이

① 가 의 ‘전문가’는 20여 년간 대학에서 어문 규범을 가르친 교수이다. 나 에서 ‘단비’는 가 의 정보 전달자인 ‘전문가’가 ‘어문 규범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설명이 ‘믿음이 갓’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단비’는 정보 전달자의 전문성에 주목하여 방송에서 다른 내용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나 에서 ‘단비’는 방송에서 다른 ‘짜장면이 복수 표준어가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믿음이 가며, 자신이 본 내용이 ‘동아리 부원들의 어문 규범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링크를 걸어’ 둔다고 하고 있다. 이로 보아 ‘단비’가 짜장면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이유에 주목하여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가 에서 ‘전문가’가 ‘복수 표준어 선정을 위해 실시한 발음 실태 조사’를 언급하며 비표준어였던 짜장면이 표준어인 자장면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나 에서 ‘아림’은 ‘발음 실태 조사에 대해 듣고’ 알게 된 사실을 말하면서, 정보의 출처인 ‘조사 기관이 언급되지 않아서 관련 자료를 찾아봐야겠’다고 하고 있다. 이로 보아 ‘아림’은 발음 실태 조사에 주목하여 방송에서 제시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가 에서 비표준어였던 짜장면이 표준어로 인정받은 사실을 다루고는 있으나, 이전에 자장면만을 표준어로 인정했던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나 에서 ‘준서’는 자장면만 표준어로 인정했던 사실에 주목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준서’는 방송에서 자장면만 표준어로 인정됐던 사실에 주목하여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04 보조 용언 ‘못하다’는 ‘반영하다’라는 본동사 뒤에 쓰인 보조 동사로, ‘앞말이 뜻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에 쓰인 ‘못하다’는 반영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일이 지속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모답 풀이

① ‘전문가’는 ‘한때는 자장면만 표준어로 인정됐다는 사실’을 아는지 ‘진행자’에게 물었고, 이에 대해 ‘진행자’가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다며 자신

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 이때 ‘진행자’는 ‘본 적’에 과거에 일어난 일임을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인 ‘-ㄴ’을 사용하여 자신의 과거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② ‘(누가) 짜장면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다.’와 같이 ‘인정하다’를 사용하면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주체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하지만 ‘짜장면은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다.’와 같이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인정되다’로 표현하면 인정을 하는 행위의 주체인 ‘누가’는 드러나지 않고, 행위의 대상인 ‘짜장면’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④ ‘-ㄹ 수 있다’는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은 ‘-ㄹ 수 있다’를 사용하여 ‘표준어가 아닌 말도’ 일상에서 자주 쓰면 ‘표준어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⑤ ‘진행자’는 ‘전문가’의 ‘말씀을 듣고 보니’ 짜장면이 표준어가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진행자’는 ‘듣고 보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짜장면이 표준어가 된 이유를 알게 된 것이 ‘전문가’의 말을 듣고 난 후임을 드러내고 있다.

